

사고—잃지 않고 정리하기

실천을 통한 체계적 사고 입문

Kai Froeb



이 번역에 관하여

이 번역은 AI를 이용한 기계 번역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사람이 전체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feedback@reflexivitypress.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 책을 구매하시고 오류를 알려 주신 분께는 수정본을 전자책으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저자

Kai Froeb

https://kai.froeb.net

출판사

Reflexivity Press

리스본

카이 프뢰프 에디션

최신판 및 정정 안내:
https://reflexivitypress.com/ko/books/froeb-systematisches-denken

의견: feedback+ko.systematisches-denken.v0.56@reflexivitypress.com

표지: © Reflexivity Press, Kai Froeb. https://reflexivitypress.com/en/about/cover-art/

간행

2026-11-21

번역: 2026-11-25

버전 0.56

Typeset with LaTeX (LuaHBTeX, Pandoc + Eisvogel)

접근성 안내

모든 이미지에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필 안내

이 책은 언어 모델 Claude (Anthropic)을 활용하여 집필되었다. 구성, 내용과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번역은 AI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작업 방식은 저자의 글에 설명되어 있다: https://reflexivitypress.com/ko/about/machines-that-write/

© Copyright 2026 by Reflexivity Press, 리스본.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학습**:** 명시적으로 허용됨(ZMC 1.4, 제11절).

Zero Marginal Cost License 1.4 (ZMC 1.4)

독자 여러분을 위한 요약

한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

허용되는 사항

- 저작물을 무료로 읽고, 내려받고, 복제할 수 있다.
- 저자, 출처 및 라이선스 표시와 함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디지털 배포할 수 있다.
-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파일 형식을 기술적으로 변경하고 접근성을 위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개별 사본을 인쇄하거나 인쇄를 의뢰하여 선물할 수 있다. 직접 비용은 이윤 가산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 자신의 개인적·비공개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번역을 만들 수 있다.
-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버전·날짜·최신판 안내와 함께 공개적으로 미러링할 수 있다.
- 저작물을 교육과 연구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상업적 이용 시 학술 기준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단, 인용 모음집으로 저작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조건

이용은 비상업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배포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저자, 저작물 출처 및 라이선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재라이선스하거나 새 판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권리자뿐이다. 추가적인 법적 또는 기술적 제한을 부과하거나 저자 또는 출판사의 지원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 외의 모든 권리는 유보된다

이 라이선스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이용만을 허용한다. 그 이상의 모든 이용은 법적으로 이미 허용되지 않는 한 권리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법정 이용 권한과 보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는 별도의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중요 참고 사항: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독립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것은 완전한 **ZMC 1.4**이다:

https://reflexivitypress.com/ko/zmc/



저자에 대하여

Kai Froeb(*1963)은 포르투갈 대서양 연안에 거주합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저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책은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자신의 사고로 검증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구조 자체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본문과 다를 경우, 그것은 이 책의 한계에 도달했거나 당신 사고의 특성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둘 다 단순한 동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오랫동안 평행하게 달려온 두 개의 궤적을 거쳐 왔습니다. 하나는 뤼네부르크의 고등학교 시절과 괴르데 시민대학의 여름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하나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 길은 수학, 정보과학, 경영학, 문화학, 법학으로 이어졌지만, 학위는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않아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0년 코모도어 CBM 8032에서 바이젠바움의 ELIZA 복제판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지원, 프로젝트 관리, 교육——처음에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하우스에서, 다음에는 대규모 IT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10여 년간 기업 내 위원회와 노동조합에서 활동했습니다.

두 궤적이 하나라는 것은 늦게 밝혀졌습니다. 40년의 소프트웨어 작업에서 습관이 된 것——구조 분해, 의존성 가시화, 당겼을 때 무엇이 견딜 수 있는지 검증——은 철학적 논증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기법입니다.

1998년 이래로 Froeb는 **hegel.net**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11개 언어로 제공되는,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가장 포괄적인 다국어 헤겔 자료이며, 헤겔과 19세기 헤겔학파의 디지털화된 원본 판본 500여 점을 포함한 공개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hegel.net을 통해 Johannes Heinrichs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Froeb는 현재 Heinrichs의 작품을 출판인으로서 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학창 시절에 유래했으며, 그 이후로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진리는 전체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는 통합을 요구합니다——그래서 들리는 것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부정확하거나 간과된 점을 발견하신다면, 당신의 비판은 이 책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목차

그림 목차 **xi**

제0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1**
- 0.1 물음 . . . 1
- 0.2 권위에 의존하지 않음 . . . 2
- 0.3 진행 과정과 그 척도(Maßstab) . . . 2
- 0.4 단어들 . . . 3

제I부: 서로 속하는 것 **5**

제1장: 무엇을 위해 정리하는가 **7**
- 1.0 읽으면서 이미 일어나는 것 . . . 7
- 1.1 가장 작은 질서 . . . 7
- 1.2 개요(Überblick)와 접근(Zugriff) . . . 8
- 1.3 압축하기(Verdichten) . . . 9
- 1.4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 . . 11

제2장: 관점(Hinsicht) **13**
- 2.1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는가 . . . 13
- 2.2 세 수준(Ebene) . . . 14
- 2.3 여러 관점 . . . 15

제3장: 열과 칸 **17**
- 3.1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질서들 . . . 17
- 3.2 칸 속의 칸 . . . 18
- 3.3 질서가 감추는 것 . . . 18
- 3.4 열이 보이게 만드는 것 . . . 20

제4장: 패턴(Muster) **21**
- 4.1 반복되는 것 . . . 21
- 4.2 발견된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 . . 22
- 4.3 패턴이 열려 있는 곳 . . . 22
- 4.4 너무 거친, 너무 세밀한 . . . 23
- 4.5 패턴이 실패하는 지점 . . . 24
- 4.6 제1부 회고 . . . 24

제II부: 왜 그것이 함께 속하는지 **27**

제5장: 원리(Prinzip) **29**
5.1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29
5.2 일반화(Verallgemeinerung)와 원리 29
5.3 원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 30
5.4 원리가 실패하는 지점 31

제6장: 근거(Grund) **33**
6.1 빈, 임의의, 충분한 33
6.2 충분함은 얼마나인가 34
6.3 추론(Schluss) 34
6.4 근거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35
6.5 사항 안의 근거 35
6.6 개별 근거가 실패하는 지점 36
6.7 제2부 회고 36

제III부: 하나의 전체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39**

제7장: 종들(Arten) **41**
7.1 고래 41
7.2 올바른 것과 좋은 것 42
7.3 대상이 경계를 긋지 않는 곳 43
7.4 구분하기가 멈추지 않을 때 43
7.5 종이 실패하는 지점 44

제8장: 부분들(Teile) **45**
8.1 자전거의 두 가지 분해 45
8.2 구조화를 좋게 만드는 것 46
8.3 구조화가 구조화되는 것보다 중요해질 때 46
8.4 교양서의 구조화 47
8.5 분해가 실패하는 지점 47

제9장: 연관들(Zusammenhänge) **49**
9.1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49
9.2 세 종류의 연관 50
9.3 나무와 망 50
9.4 관계가 잘못 읽힐 때 52
9.5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될 때 52
9.6 망이 실패하는 지점 53

제10장: 과정들(Verläufe) **55**
10.1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55
10.2 사항이 과정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때 55
10.3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56
10.4 리듬(Rhythmus) 56
10.5 종들이 단계들일 때 57

10.6 동시에 두 질서 58
10.7 과정이 실패하는 지점 58

제11장: 자기 전개(Selbstentfaltung) **59**
11.1 수 59
11.2 보편(Allgemeines), 특수(Besonderes), 개별(Einzelnes) 60
11.3 이것이 얼마나 멀리 뒷받침하는가 62
11.4 보편을 찾는 방법 62
11.5 자신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개념들 63
11.6 자기 전개와 다른 네 가지 64

제12장: 어떤 질서가 더 나은가? **67**
12.1 알맞은 물음 67
12.2 세 단계 67
12.3 교차 참조(Verweise) 69
12.4 연구에서 그리고 글쓰기에서 정리하기 70
12.5 제3부 회고 70

제IV부: 질서가 요구하는 대가 **73**

제13장: 압축하기와 상실하기 **75**
13.1 압축의 세 단계 75
13.2 압축이 성공하는 이유 75
13.3 나머지 76

제14장: 죽은 질서 **79**
14.1 양식 47B 79
14.2 죽은 질서를 알아보는 방법 79
14.3 정합적 기만(kohärente Täuschung) 80
14.4 공유된 질서 83

제15장: 고유한 질서 **85**
15.1 스스로를 정리하는 사유 85
15.2 고유한 질서들은 어디서 오는가 86
15.3 정리하는 자의 교만 87
15.3a 길 87
15.4 이 책을 시험으로 88
15.5 열린 채로 남는 것 89

부록 **A:** 연습(Übung)들 **91**
A1: 결정 정리하기 91
A2: 논쟁 대화 정돈하기 91
A3: 보관함(Ablage) 마련하기 92
A4: 응축(Verdichtung)하고 되찾기 92
A5: 강연 구성하기 93

A6: 한 장(章) 검토하기 93

부록 **B:** 이렇게 본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강한 반론들 **95**
B1: 각 장에 대하여 95
B2: 다섯 가지 반론의 고유한 형태 98
B3: 다른 책들에서 더 읽어보기 101

용어집 **103**
사용 지침 103
개관 103
개념 104
경과 104
계열과 칸 104
공유된 질서 (geteilte Ordnung) 105
관계 105
관점 105
구성 106
근거: 공허한, 임의의, 충분한 106
기계적 질서와 살아 있는 질서 106
기준 107
긴급성 107
나머지 107
리듬 108
무늬 108
보편, 특수, 개별 (Allgemeines, Besonderes, Einzelnes) 108
본질성 109
분류 109
사실적, 기능적, 개념적 연관 109
상호 참조 110
올바르고 좋은 구분 110
외적 110
원리 111
응축 111
일반화 111
자기 전개 112
접근 112
정합적 착각 112
중요성 113
증식하는 질서 113
지양 (Aufhebung) 113
질서 114
질서화 방식 114
체계, 체계적 114
추론 115

편견 (Vorurteil) 115

그림 목차

1 종들의 기호: 틀 없이 세 개의 분리된 형상들. 그것들 사이의 간격이 의미를 지닌다. 41
2 부분들의 기호: 내부가 구별된 하나의 닫힌 형상. 45
3 관계의 기호: 선들로 연결된 여러 형상들. 49
4 과정의 기호: 화살촉이 있는 굽은 궤적. 굽은 이유는, 곧은 화살이 과정만을 뜻하는 곳에서 진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55
5 자기 전개의 기호: 삼각형, 그 안에 뒤집힌 삼각형이 들어 있고, 그 꼭짓점들은 변의 중점들에 닿는다. 같은 도형이 각 부분마다 반복된다. 59

제0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0.1 물음

정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시 찾으려 한다. 서류철(Ablage) 속의 한 문서를, 작업장 속의 한 도구를, 책 속의 한 생각을.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보려 한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지 않고서 말이다. 둘 다 많은 것이 적은 것이 될 때에만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는 사라진다. 이 책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서류를 정리하는 것 이상이다. 서랍을 정리하는 사람은 사물들을 정리한다. 동물의 종(種)을 규정하는 사람, 개념을 형성하는 사람, 이론을 구조화하는 사람, 책을 구성하는 사람은 생각들을 정리한다. 고래가 포유류라는 것, 수들이 자연수, 정수, 유리수로 나뉜다는 것, 어떤 교과서가 저 장이 아니라 이 장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모두 질서(Ordnung)이며, 무엇을 이해하는가는 이 질서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유를 통한 정리, 즉 구분(Einteilung)과 개념 형성, 패턴(Muster)과 원리(Prinzip)와 근거(Grund), 그리고 구조화(Gliederung)를 다룬다. 서류 정리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거기서는 모든 단계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생물의 종들, 수들, 과학적 설명들, 텍스트의 구성으로 나아간다.

그렇기에 이 물음은 측정 계열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종을 기술하는 연구자에게, 사례를 구조화하는 법률가에게, 교양서를 쓰는 사람에게, 또한 교양서를 쓰도록 프로그램된 기계에게, 그리고 단지 자신의 서류를 파일철에 넣는 사람에게 제기된다. 답들은 이 장소들에서 각기 다른 정밀도를 가지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0.2 권위에 의존하지 않음

이 책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리 과정에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서, 서류철에서, 구조화하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말이다. 예들은 설명할 뿐 증명하지 않는다. 어떤 예는 고안된 것이고, 어떤 예는 일상에서 가져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서나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증이 뒷받침해야 한다. 어떤 단계에 명백한 반론(Einwand)이 있다면, 반론이 거기에 있다.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형태로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있다. 답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이 언급된다.

이 책의 생각들 중 많은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며, 어떤 것은 오래전에 생각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부록 B에 나와 있다. 어디서 더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로서 말이다. 때로는 생각이 전개된 후, 단락 끝의 한 문장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뒷받침되지 않는 단계는 유명한 이름이 걸었다고 해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0.3 진행 과정과 그 척도(Maßstab)

이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서다. 정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의 질서다. 따라서 이 책은 질서들에 대해 말하는 바로 그것에 비추어 측정되어야 하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금석을 손에 쥐게 된다.

척도는 모든 질서에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물음이다. 질서는 자신의 구성 요소들이 왜 바로 이것들이고 왜 그렇게 놓여 있는지 말할 수 있는가? 알파벳 순서의 질서는 그럴 수 없다. “개”가 “게” 다음에 온다는 것은 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수의 구분, 즉 각 종류가 이전 종류에서 어떤 계산이 풀리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구분은 그럴 수 있다. 질서가 자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질서는 사물에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며, 그것이 생략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이 책은 이 물음을 따라 전개된다. 제1부는 무엇이 함께 속하는지는 말하지만 왜인지는 말하지 않는 질서들을 다룬다.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지에 관한 관점(Hinsicht), 열(Reihe)과 칸(Fach), 패턴이 그것이다. 제2부는 왜라는 물음을, 원리와 근거를 묻는다. 제3부는 하나의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정리 방식(Ordnungsweise)을 발견하는데, 그 마지막 방식은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제시한다. 제4부는 모든 질서가 무엇을 대가로 치르는지 묻는다.

이것은 예고이며, 먼저 실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 책이 바로 이 부분들과 이 순서를 갖는 이유는 각 부분의 끝에서, 무엇이 정리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제시되며, 전체에 대해서는 책의 끝에서 제시된다. 이 책을 다르게 구조화하려는 사람은 동일한 물음 속에 두 구조화를 비교할 수단을 갖는다.

0.4 단어들

질서 짓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책은 가능하면 일상어의 단어들을 씁니다. 몇몇 전문어는 그런 사태들에 관해 정착되어 다른 곳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므로 이 책이 받아들입니다: 압축, 분류, 구성, 관계. 각각은 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설명됩니다. 책 끝의 용어집이 그 위치를 알려 줍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이 책에는 서로 다른 물음을 던지는 네 권의 이웃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관한 책으로,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이미 수행하는 검토에서 진리를 전개합니다. 하나는 논리학에 관한 책으로, 규정의 기본 형식들을 훑습니다. 하나는 윤리학에 관한 책으로, 동일한 검토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빚진 것을 전개합니다. 하나는 조직에 관한 책으로, 이 책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지식, 근거, 바로잡음이 그 안에서 작동하려면 제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느 책도 다른 책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진리 (2025)이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질서를 다른 질서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것과 더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 책에서 그것이 별도로 전개됩니다. 여기서는 질서 짓기가 요구하는 한에서 질서 짓기 자체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인용문 번역에 관해: 헤겔과 다른 독일어권 저자들의 인용문은 이 판본을 위해 독일어 원문에서, 이 책의 용어법으로 번역되었으며, 기존 번역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권위 있는 번역이 있는 경우, 그것들은 각기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번역은 이 책의 해석을 따릅니다. 번역문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독일어 원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짧은 인용문은 인용 뒤 괄호 안에, 더 긴 인용문은 그 아래 별도 단락이나 그 인용을 증명하는 각주에 실립니다. 아주 짧은 표현(네 단어 미만)은 원문 없이 두며, 독일어 본문에 이미 다른 언어로 들어 있는 인용문은 그대로 둡니다.

더 읽어보기: 진리

제i부: 서로 속하는 것

제1장: 무엇을 위해 정리하는가

1.0 읽으면서 이미 일어나는 것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이미 정리했다. 앞의 페이지들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주요 생각이었고, 무엇이 예였으며, 무엇이 곁다리 언급이었는가? 답은 대개 확인하기도 전에 준비되어 있다. 그런 다음, 다음 단락을 그 안의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도록 읽어 보십시오.

그것은 실패한다. 아무것도 가중치를 두지 않으려는 의지조차 하나의 가중치 부여다. 왜냐하면 그 의지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의 소견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함이 정리하는 것임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부정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근거들을 앞에 내세우고 부수적인 것을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람이 이 책을 읽는 동안 행하는 어떤 것을 다루며,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바는 이 행위에서 검증될 수 있다.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지켜볼 수 없다. 책상 위에서는 더 느리고 더 눈에 띄게 일어난다.

1.1 가장 작은 질서

□□ 1: □□□ □□

당신의 책상이나 그것에 가장 가까운 면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질서가 지배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무질서입니까? 모든 것이 떨어진 그대로 놓여 있습니까?
드물게 그렇다. 매일 사용되는 것은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다. 한 가지 일에 속하는 것은 함께 놓여 있다. 더미가 비뚤어져 있더라도 말

이다. 아직 처리해야 할 것은 위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의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은 주인의 항의를 통해 이를 경험한다. 주인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책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는 가장 작은 질서다. 이것은 저것 곁에 놓이고, 저것은 옆으로 치워진다. 둘은 동시에 일어난다. 청구서들을 한 더미에 놓는 사람은 그것들을 편지들로부터 분리한 것이다.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사람은 그것을 버려도 되는 것들 곁에 놓은 것이다. 다른 것과 분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함께 놓을 수 없다.

반론: 그렇다면 모든 배열(Anordnung)이 질서다. 바람이 구석으로 날려 보낸 낙엽 더미 속에서도 이것은 저것 곁에 놓여 있다.

답변: 그것은 함께 놓여 있지만, 누군가가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서가 아니다. 질서는 여기서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배열을 뜻해야 한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함께 속하는지. 비뚤어진 더미는 그것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리되어 있다.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가 그 근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미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것이 드러난다. 어떤 배열이 질서인지는 사물들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찾고 있으며 그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1.2 개요(Überblick)와 접근(Zugriff)

세 개의 물건이 있는 서랍에는 질서가 필요 없다. 서랍을 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삼백 개가 있는 서랍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모든 연결들과 함께 모든 것을 동시에 시야에 담는 사람에게는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 기억은 한 번에 적게 담고, 주의는 더 적게 담는다. 밖으로 옮겨 놓는 것은 거의 임의로(beliebig) 많이 가능하다. 선반, 파일철, 데이터베이스로 말이다. 그러나 밖으로 옮겨진 모든 조각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의 물음이 커진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요구가 나온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지 않고서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이를 개요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접근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교양서가 보여 준다. 교양서는 이 둘 각각에 대해 고유한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는 목차가 있다. 목

차는 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순서인지 보여 주며, 책을 읽은 사람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대략 안다. 그러나 특정한 세부 사항은 목차에서 거의 찾지 못한다. 뒤에는 색인이 있다. 색인은 한 단계에 한 단어가 나오는 모든 지점으로 이끌지만,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목차는 사항(Sache)에 따라 정리하고, 색인은 알파벳에 따라 정리한다. 그리고 바로 알파벳이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두 성능은 측정될 수 있다. 접근의 경우, 임의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데 몇 단계가 필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사전에 알아야 하는가? 색인은 한 단계가 필요하지만, 그 단어를 알 것을 요구한다. 개요의 경우, 전체를 보기 위해 머릿속에 몇 개의 구성 요소를 유지해야 하는가? 다섯 부분으로 된 목차는 개요를 제공하고, 부분 없이 마흔 개의 장으로 된 목차는 각 장의 이름이 잘 붙어 있더라도 개요를 제공하지 못한다.

질서를 만드는 사람은 그로써 나중에 무엇이 쉽게 찾아지고 무엇이 어렵게 찾아질지를 결정한다. 대개 그는 자신이 찾을 때에야 그것을 알아차린다.

1.3 압축하기(Verdichten)

□□ 2: □ □□□□ □ □□

잘 아는 사람과 나눈 마지막 긴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읽기 전에,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문장은 대략 이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지만, 담담하게 본다.” (DE: „Er sorgt sich um seine Stelle, sieht es aber gelassen.“)
한 시간이 한 문장이 되었다. 날씨, 커피, 새 안경, 주제에 이르기까지의 우회로들은 사라졌고, 그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빠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서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삼백 개의 물건을 여섯 개의 칸에 넣는 사람은 삼백 개의 위치 대신 여섯 개의 표지를 기억해야 한다. 각 표지는 그 아래에 놓인 모든 것을 대표한다. 정리한다는 것은 압축하는 것이다.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의해 대표된다. 기술 분야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을 압축(Kompression)이라 부르는데, 라틴어로 ‘함께 누르다’라는 뜻이다. 그 말은 여기서도 맞다.

이것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극단적인 경우가 보여 준다. 모든 파일을 하나의 유일한 기호로 압축하는 절차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압축했지만, 사용할 수 없다. 하나의 기호로부터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압축은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동안에만 사용 가능하다. 기술 분야는 두 종류를 안다. 하나는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전체가 다시 생겨난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를 버린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눈이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색상 단계들을 말이다. 둘 다 사용 가능하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버려지는가이다.

이로써 좋은 압축과 나쁜 압축을 구별할 수 있다. 좋은 압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보존한다. 나쁜 압축은 둘을 혼동한다. 당신이 대화를 "그가 또 징징거린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했다면, 그것은 더 강한 압축이었을 것이다. 그 문장은 그와 나눈 많은 대화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의를 아끼고 다음 대화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이 생략한 것은 바로 이번에 달랐던 것이다. 편견(Vorurteil)은 이렇게 작동한다. 강하고 빠르게 압축하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Unterschied)들을 버린다. 그러나 빠른 압축 없이는 어떤 대화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에 들어가며 갖는 모든 기대가 하나의 압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화가 더 이상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을 때에야 편견이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덜 압축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전혀 요약하지 않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아는 것이 없다. 해결책은 다르게 압축하는 것이다. 빠른 문장이 버린 차이들을 되찾고, 그중 어떤 것이 이번에 중요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반론: 그렇다면 정리는 항상 상실이다.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답변: 어차피 모든 것은 보존된다. 삼백 개의 물건은 정리한 후에도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 상실되는 것은 시야 속의 어떤 것이다. "케이블"이라는 표지는 어떤 케이블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개요의 대가이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삼백 개의 위치를 갖고 개요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상실과 무상실 사이가 아니라, 상실들 사이다. 이 선택에 질서가 유용한지가 달려 있다.

두 번째 반론: 검색 엔진이 있으면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다. 찾는 것을 입력하면 그것을 갖는다.

답변: 당신은 이름을 댈 수 있는 것을 갖는다. 검색은 접근을 제공할 뿐 개요는 제공하지 않는다. 검색은 그 밖에 무엇이 더 있는지, 무엇을 물었어야 했는지 보여 주지 않는다. 그리고 검색은 사전에 그것이 찾을 수 있도록 파악된 것만 찾는다. 발신자 필드가 없는 아카이브는 발신자별로 검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리는 계속된다. 다만 다른 자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에 의해,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경우에 대해 동시에 말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세 번째 정리 방식에서 다루어진다.

1.4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로써 다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물음이 되돌아온다. 당신이 읽으면서 이미 답한 물음이다(1.0장). 무엇이 중요한가? 친구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었다. 안경사가 들었다면 새 안경이 그녀에게 남았을 것이다. 그녀가 더 나쁘게 압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음을 위해 압축했을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 척도가 발견되었다. 무엇을 위해 압축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으로 압축이 보존해야 할 것을 보존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일상어는 중요한 것에 대해 두 단어를 알고 있으며,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중요함(Wichtigkeit)은 누군가에게, 어떤 물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다. 본질적임(Wesentlichkeit)은 누가 묻든 사물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계약의, 질병의, 다툼의 본질적인 것 말이다. 그러한 것이 있는지는 단어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물음을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한 사례가 그 차이를 만질 수 있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책장을 색깔별로 정리하며, 주어캄프 총서(edition suhrkamp)는 이를 특별히 부추겼다. 책등을 나란히 두면 색 스펙트럼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크기별로 정리하며, 이를 위한 좋은 근거들이 있다. 칸을 더 좁게 할 수 있고, 도서관들은 서고에서 책들을 크기별로 분리하는데, 특히 그 때문이다. 책장이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둘 다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 대해 무언가를 찾거나 한 저자의 모든 책을 함께 갖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는 책들을 빗나가게 정리했다고 말할 것이다. 색깔과 크기는 정확한 의미에서 외적인 특징들이다. 그것들은 책의 바깥면에 있으며, 책은 그 안에 쓰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척도를 어디서 얻는가? 그는 단지 첫 번째 물음 옆에 다른 물음을 놓는 것이 아니다. 그는 책들 자체에 있는 무엇, 책을 책으로 만드는 것에 의존한다. 그것이 사항에서 나온 척도인지, 아니면 책들에서 통상적인 물음일 뿐인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다.

물음은 열린 채로 남으며, 이 책의 경로는 이 물음에 달려 있다. 척도는 단계(Stufe)마다 사항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처음에는 사람이 선택하는 관점으로서, 그 다음에는 사물들에서 발견하는 반복으로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따라 나오는 근거로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구성 요소들이 왜 바로 이것들인지 제시하는 질서로서 말이다. 끝에 사항 자체에 속하는 척도가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이 경로가 보여 주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관점, 즉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는가이다.

제2장: 관점(hinsicht)

2.1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는가

□□ 3: □□, □ □

당신의 옷장을 세 번 정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색깔별로, 한 번은 옷을 입는 경우(occasion)별로, 한 번은 계절별로 말입니다. 세 질서 각각에서 무엇을 쉽게 찾고 무엇을 어렵게 찾습니까? 색깔별로 분류하면 무엇이 서로 어울리는지 한눈에 보이지만, 면접을 위해서는 모든 칸을 뒤져야 합니다. 경우별로 분류하면 아침에 올바른 칸에 손이 가지만, 진한 파란색 스웨터가 회색 바지와 어울리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도 똑같이 잘 어울리는 셔츠는 사무실 칸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계절별로 분류하면 봄에는 칸 하나 전체를 치울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세 질서 각각은 이것을 저것 곁에 놓으며, 각각은 다른 근거에서 그렇게 한다. 같은 색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 입기 때문에, 같은 계절에 속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보는 것을 관점이라 부르기로 한다. 관점 없이는 질서가 없다. 단지 배열만 있을 뿐이다(1.1장). 왜냐하면 관점이 비로소 무엇이 여기 있고 저기에 없는 이유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모든 관점은 자기 방식으로 압축한다. 색깔별로 정리되면 색깔의 차이는 중요하고 경우의 차이는 사라진다. “파란색”이라는 표지는 그것이 결혼식에 적합한지 말하지 않는다. 어떤 차이들을 질서가 보존하고 어떤 차이들을 버리는지는 관점이 정하며, 그로써 무엇을 그 안에서 쉽게 찾고 무엇을 어렵게 찾는지도 정해진다.

반론: 그렇다면 어떤 질서도 사항을 맞히지 못한다. 각 질서는 자신의 관점이 보여 주는 것을 보여 줄 뿐이며, 사람은 항상 다르게만 정리할 뿐, 있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답변: 사람이 질서를 포기하는 지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옷장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2주 후에 다시 정리한 사람은, 자신의 질서를 아무런 질서

도 없는 옷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옷들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 그는 무언가가 풀리지 않았음을 알아차렸다. 아침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했거나, 어떤 옷이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과 그것이 실패하는 것은 동일한 경험, 즉 질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험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해 모든 질서 밖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질서가 "사항 자체"를 맞히는지의 물음은 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비교를 통해 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경우마다, 때로는 '아니오'로 답해진다. 이 책은 그 다른 절반을 묻는다. 무엇이 한 질서를 다른 질서와 구별하는가를.

2.2 세 수준(Ebene)

책상 위에 도서관 책이 놓여 있다. 내일 반납해야 하며, 절반밖에 읽지 못했다.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듯하다. 여기서 "중요한"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세 가지 의미를 구별할 수 있으며, 세 가지 모두 같은 책에서 보여 줄 수 있다. 매번 다른 것은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첫째는 긴급성↑(Dringlichkeit)이다. 지금 막 사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은 정리하는 사람의 처지와 관련되며, 책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책이 반납되면 긴급성은 사라지고, 책은 그대로다.

둘째는 어떤 물음에 대한 중요성이다. 이사하며 짐을 싸는 사람에게는 크기와 무게가 중요하다. 책에서 인용하려는 사람에게는 판본과 쪽수가 중요하다. 책을 선물하려는 사람에게는 표지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어떤 물음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같은 물음을 묻는 사람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1장이 첫 번째 척도를 발견한 수준이다.

셋째는 본질성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묻든 책을 그것이게 만드는 것이다(1.4장).

가장 쉽게 혼동되는 것은 두 번째 수준, 즉 어떤 물음에 대한 중요성과 다른 수준이다. "그건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DE: „das ist doch unwichtig")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이 물음에 대해, 그리고 그 물음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며 말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물음을, 때로는 사항을 뜻하며, 그 차이를 종종 알아차리지 못한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은 사항에 대한 정보라고 자처하는 두 물음 사이의 논쟁이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항 자체에 놓여 있는 것을 단지 다른 물음들 사이의 한 물음으로 여긴다.

본질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험(Probe)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변하면 나머지도 변하는가? 책에서 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새 표지를 씌우면 그것은 같은 책이다. 내용, 구조, 독자에 대한 가치는 이전 그대로다. 텍스트를 바꾸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변하며, 극단적인 경우 다른 책이 된다. 텍스트는 책등의 색깔보다 책에 더 본질적이다.

반론: 수집가에게는 반대다. 원래 표지가 있는 초판은 그것이 없는 것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으며, 텍스트는 그대로다. 그렇다면 본질성도 어떤 물음, 즉 수집가의 물음에 대한 중요성일 뿐이다.

답변: 수집가와 독자는 같은 단어 아래에서 두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독자는 여러 판본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뜻한다. 수집가는 이 특정한 개별 사본, 즉 역사를 가진 하나의 대상(Gegenstand)을 뜻한다. 개별 사본에서 표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 표지를 바꾸면 개별 사본이 무엇인지, 즉 완전한 초판인지 불완전한 것인지가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험은 둘 다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항을 무엇으로 취하는지, 작품으로인지 개별 사본으로인지 아는 것을 전제하며, 이 물음은 그 시험이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

여기서 시험이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가 드러난다. 시험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확정되어 있을 때 무엇인가가 본질적인지 검토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확정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폰이 떨어졌다면, 기기의 본질, 추락의 본질, 손상의 본질을 물을 수 있으며, 매번 다른 것이 본질적이다. 기기의 경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 추락의 경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손상의 경우 그것이 복구될 수 있는지. 이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논쟁하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머지가 무엇인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사항을 무엇으로 취해야 하는지를 어디서 아는지는 이 시험이 말하지 않는다. 둘 다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그것은 제2부에 속한다.

2.3 여러 관점

실험 3의 옷장에는 세 질서 중 어느 것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세 관점 모두 정당하다. 아침에 경우별로 집는 사람은 저녁에 색깔별로 조합하고 싶고, 봄에는 계절별로 다시 정리하고 싶다. 세 물음 중 어느 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어느 것도 본래의 것이 아니다. 각각은 때가 있다. 게다가 단 하나의 관점조차 깨끗하게 나누지 못한다. 같은 셔츠가 사무실에도 저녁에도 어울리고, 같은 바지가 평일에도 여행에도 어울린다. 칸에 따라 엄격하게 옷을 입는 사람은 거기 놓인 것으로 자신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

경우들은 서로 겹치는데, 왜냐하면 옷들이 하나의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맞기 때문이다.

화면에서는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옷들을 세 가지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다. 옷장에서는 각 옷이 한 장소에 놓여 있다. 여러 관점을 동시에 충족하려는 사람은 그것들을 서로 겹쳐 넣어야(schachteln) 한다. 먼저 경우별로, 그 안에서 색깔별로, 또는 그 반대로 말이다. 그리고 순서가 어떤 물음은 한 번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떤 물음은 세 번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대가로 치르는지가 특징들에 따라 분류하는 질서들의 물음이다.

더 읽어보기: 진리 (2025), 장 11

제3장: 열과 칸

3.1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질서들

사전은 알파벳에 따라 정리한다. "개"가 "게"와 "굶주림"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누구나 사전에서 찾는 것을 찾는다. 그 단어를 아는 한 말이다. 사항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수신 문서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아카이브도 그렇게 작동한다. 3월 3일의 문서는 3월 4일의 문서 앞에 있다. 둘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서고의 책들을 입수 순서대로, 각각에 일련번호를 붙여 배열하는 도서관도 내용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이 작동한다.

그러한 질서들은 세 가지 장점이 있으며, 세 가지 모두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서 나온다. 분류 기준이 되는 특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첫 글자, 날짜, 번호 말이다. 새로운 것을 옛것을 옮기지 않고 삽입할 수 있다. 다음 문서는 끝에 가고, 새 단어는 알파벳상의 제자리에 간다. 그리고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 특징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가는 그만큼 분명하다. 그러한 질서는 접근을 제공하지만 개요는 제공하지 않는다(1.2장). 알파벳상의 이웃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전이 동물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사전 전체를 훑어야 한다. 질서는 모든 사물에서 하나의 유일한 특징만 보존하며, 그 특징에서도 분류에 필요한 것만 보존한다. 그것은 매우 강한 압축이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결함이 아니다. 사전은 단어를 찾게 해야 하지, 세계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함이 되는 것은 그러한 질서가 사항의 질서로 간주될 때다. 한 해의 문서들이 날짜별로 놓여 있으니 정리되어 있다고 믿고,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서신을 스무 곳에서 모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 말이다.

3.2 칸 속의 칸

사람들이 작업하는 대부분의 질서는 하나 이상의 특징을 취한다. 책장은 분야별로, 그 안에서 저자별로, 그 안에서 출판 연도별로 서 있다. 서류철은 연도별로 나뉘고, 그 안에서 발신자별로 나뉜다. 그러한 질서들은 관점들을 서로 겹쳐 넣으며, 그로써 2.3장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한에서 해결한다. 모든 사물이 하나의 자리만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여러 관점은 순차적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겹쳐 넣기에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자주 위반되는 규칙이 있다. 한 단계(Stufe) 안에서는 특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서 몇 권을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유로 색깔별로 끼워 넣는 사람은 부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두 질서를 서로 밀어 넣었으며, 이제 어느 쪽도 더 이상 뒷받침하지 못한다. 분야 아래에서 책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색깔 아래에서 찾는 사람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른다. 반면 단계들 사이에서는 특징이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겹쳐 넣기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에서 나온다. 한 단계의 칸들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며, 합쳐서 이 단계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두 칸이 겹치면 특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칸에도 맞지 않는 것이 남으면 칸이 빠진 것이다. 거의 모든 서류철에 있는 "기타" 칸은 칸이 빠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종종 전체 질서에서 가장 정직한 칸이다.

어떤 관점이 위로 오는가는 비용을 결정한다. 연도별로, 그 안에서 발신자별로 정리하는 사람은 한 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찾고, 한 발신자의 모든 것은 매년에서 따로따로 모아야 한다. 반대로 발신자별로, 그 안에서 연도별로 정리하는 사람은 발신자에서는 쉽고 연도에서는 어렵다. 항상 대가를 치른다. 문제는 어떤 검색을 위한 것인지뿐이다. 겹쳐 넣은 질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자주 검색되는 관점을 위에 놓고, 다른 것들을 사용되는 대로 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3.3 질서가 감추는 것

한 문서가 당신의 어머니가 임대한 집의 세금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세금" 폴더에 속하는가, "어머니"에 속하는가, "집"에 속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사항에 따른 질서들일 뿐이다. 그 옆에는 모든 등록부(Registratur)가 어차피 사용하는 두 가지 질서, 날짜와 발신자가 있다. 그것들도 서로 겹쳐 넣어야만 한다. 먼저 연도별로, 그 안에서 발신자별로, 또는 그 반대로, 발신 문서는 수신 문서와 함께 또는 분리하여 말이다. 모든 선

택은 옹호될 수 있으며, 모든 선택은 그 문서를 다른 자리들에서 보이지 않게 만든다. 3년 후에 그것을 "어머니" 아래에서 찾는 사람은 그것을 찾지 못한다. 그것이 거기에도 똑같이 잘 속했을 텐데도 말이다.

반론: 사례는 작지만, 그것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반론은 작지 않다. 모든 사물에 정확히 하나의 자리를 주는 질서는 모든 사물이 그것이 속하는 정확히 하나의 관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물들은 나무라기보다는 그물에 가깝다. 거의 모든 것은 많은 것과 연결되며, 어떤 연결이 중요한지는 물음에 따라 변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질서는 있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결정한다. 질서가 더 잘 기능할수록, 결정되었다는 것을 덜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것은 서류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 책이 앞으로 전개할 모든 질서는, 자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질서조차도, 모든 사물에 하나의 장소를 준다. 그렇다면 근거 지어진 질서가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질서를 근거 지울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항 자체로 가장 쉽게 여기기 때문이다.

답변: 이 반론에는 옳은 점이 많다. 모든 질서는 선택하며, 그 관점들 중 어느 하나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시야에서 빠진다. 그러나 반론은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간과한다. 문서가 "어머니" 아래에 없다는 것은 검색할 때, 질서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동일한 경험에서(2.1장) 알아차린다. 무언가가 풀리지 않는다. 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은 선택하기 때문이 아니다. 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은 자신의 실패들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할 때, 찾을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관점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때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질서의 포기가 아니라 질서에 대한 조건이다. 질서는 나머지↑(Rest)를 보이도록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비용이 든다. "어머니" 폴더에 세금 문서로 가는 교차 참조(Verweis)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복사기가 있은 이후로는 대신 사본을 넣을 수 있지만, 파일들은 커진다. 한 문서가 여러 자리에 속한다는 것은 모든 등록 담당자가 알았다. 열려 있던 것은 이 통찰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는가였다. 고정된 자리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질서들까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는 9.3장이 보여 준다.

순서대로 읽히는 모든 서술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책에는 목차가 있고, 목차는 하나의 열만 안다. 사항에서 나란히 서 있거나 교차하는 것은 종이 위에서는 앞뒤로 서야 하며, 두 자리에 속하는 것은 한 자리에 선다. 이 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부처럼 돕는다. 자신의 자리에 자리가 없었던 것이 속하는 다른 장으로의 교차 참조를 통해서 말이다.

이 절의 반론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에게서 가장 날카로운 형태를 얻었다. 그들은 나무에 뿌리줄기(rhizome), 즉 줄기 없이 모든 점이 모든 점과 연결될 수 있는 뿌리 그물을 맞세웠다.

3.4 열이 보이게 만드는 것

이 장의 모든 질서는 하나를 공유한다. 관점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알파벳, 날짜, 분야, 발신자는 사람이 그렇게 검색하고 싶기 때문에 분류하는 특징들이다. 질서가 그로써 사물들에 외부에서 부과된다는 것은 장점이자 대가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질서가 아무도 넣지 않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자신의 우편물을 몇 년 동안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날짜별로만 정리하는 사람은 훑어보면서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문서들이 온다는 것을 본다. 봄에는 세금 고지서, 여름에는 공과금 정산서, 가을에는 보험료들. 날짜는 그가 선택했다. 날짜 안에서 무엇인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가 선택하지 않았으며, 강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관청, 집주인, 보험회사들이 일하는 기한들과 리듬들에 달려 있다. 3.2장의 "기타" 칸도 마찬가지다. 1년 후 그 안에는 더미가 놓여 있으며, 종종 그것은 잡다하게 섞여 있지 않다. 절반은 수리공들의 문서들이다. 그것도 아무도 구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저절로 드러나며, 어떤 칸이 빠졌는지 말해 준다.

두 소견은 같은 형식을 갖는다. 선택된 관점 안에서, 선택되지 않고 사물들에서 오는 반복이 드러난다. 그것을 따르는 질서(연례 기한들을 위한 칸 하나, 수리공들을 위한 칸 하나)는 더 이상 사람이 사물들에 들이대는 특징에 따라서만 분류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물들에서 발견되는 무엇인가를 수용한다. 그러한 반복을 패턴이라 부른다.

제4장: 패턴(muster)

4.1 반복되는 것

□□ 4: □□□□□□ □□

이 줄의 글자들을 잠시 동안 의미 없는 검은 선들, 단순한 획들로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거의 성공하지 못하며, 성공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획들은 막을 수 있기 전에 글자로, 글자들은 단어로 합쳐집니다. 인식하지 않음이 인식함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강요되는 것은 패턴이다. 많은 경우에 되돌아오고 그렇기에 다시 인식되는 형상(Gestalt)이다. "a"는 모든 글씨체에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매번 "a"다. 이 능력은 멀리까지 미친다. 이웃이 있는 사람은 몇 주 후에 그가 평일에는 5시 반쯤 집에 오고 월요일에는 7시쯤 온다는 것을 안다. 그것에 주의하기로 결심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선율을 처음 듣는 사람은 두 번째에 이미 계속 흥얼거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패턴은 압축이다(1.3장). 열네 번의 개별 도착 시각 대신 하나의 규칙을 기억한다. 평일 5시 반, 월요일 7시.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그것이 없는 곳에서 알아차린다. 스무 번의 회전이 있는 길 안내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패턴을 묻는다. "계속 큰길을 따라, 끝에서 왼쪽." (DE: „immer der Hauptstraße nach, am Ende links") 그리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곳에는 적어 두는 것만 남는다.

과학에서는 같은 것이 더 크게 보인다. 튀코 브라헤(Tycho Brahe)가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화성 궤도 관측은 수천 개의 각도와 시점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는 그 안에서 하나의 규칙을 발견했다. 행성은 타원 위를 돌며, 타원의 한 초점에 태양이 있다. 아무도 머릿속에 유지할 수 없었던 표가, 표의 모든 지점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었고, 이전의 어떤 규칙보다도 더 정확했다.

이전 장의 질서들과 달리 패턴은 선택되지 않는다. 무엇에 주의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웃의 도착 시각에, 그의 자켓 색깔에는 주의하지 않기

로 말이다. 이 관점에서 무엇인가가 반복되는지는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 관점은 선택된 채로 남고, 반복은 발견된다.

4.2 발견된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반론: 패턴은 밖에 놓여 인식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재즈를 처음 듣는 사람은 소음을 듣는다. 시간이 지나면 리듬, 회귀, 응답을 듣고, 갑자기 그것이 의미가 된다. 패턴은 그것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생겨났다. 사람은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패턴을 만든다.

답변: 재즈에서 그것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음악가들은 형식에 따라 연주한다. 그들은 정해진 마디 수 후에 주제로 돌아오고, 서로 응답하며, 템포를 유지한다. 시간이 지나 그것을 듣는 청자는 그들이 하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가 패턴을 창조했다면, 다른 모든 소음 속에도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적어도 같은 방식으로는. 구름 속에서 얼굴을 볼 수 있고 라디오의 잡음 속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패턴들은 계속될 수 없다. 구름은 얼굴이 다음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잡음 속의 목소리는 두 번째 문장을 말하지 않는다. 반면 재즈의 패턴은 계속될 수 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주제가 언제 돌아오는지 안다.

반론에서 옳은 것은 패턴이 학습되며, 학습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듣는 관점이 청자에게서 온다는 것도 옳다. 그러나 패턴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의 인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구름 속의 얼굴은 다음 1분에서 실패한다.

그러므로 패턴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청자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관점은 그가 가져오고, 회귀는 사항에서 오며, 둘이 함께 맞는지는 다음 마디가 보여 준다.

4.3 패턴이 열려 있는 곳

수열 1, 2, 4: 어떻게 계속되는가? 대부분은 수가 매번 두 배가 되기 때문에 8이라 말한다. 그러나 7도 똑같이 맞는다. 간격들이 1씩 커진다. 처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두 규칙 모두 제시된 모든 것을 설명하며, 다음 항에서야 갈라진다. 더 많은 항들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유한한 열에 대해 그것을 계속하는 임의로 많은 규칙들이 있으며, 사례들만으로는 그들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세워질 수 있는 반론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 확정된 패턴도 새로운 것에 적용될 때는 그대로 남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모든 용법에서 다시 인식된다. 그러나 그 아래 포섭되는 모든 새로운 사례, 재구성 가족, 두 과부의 동거 공동체는 그것이 뜻하는 바를 이동시킨다. 그렇다면 패턴 인식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인식, 자신이 옳은 것을 인식했는지 결코 모르는 인식이 아닌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어떤 방법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거기서 규칙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8이 오는지 7이 오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열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분열하는 박테리아를 센다면 8이다. 매주 이전 주보다 한 단계 더 늘리는 훈련 계획에서 왔다면 7이다. 패턴은 수들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들과 그것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로부터 인식된다. 그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다음 사례가 결정한다. 그때 다시 배우는 사람은 패턴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찾은 것이다. 단어에서도 비슷하다. "가족"이 이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례가 논쟁을 촉발한다는 데서 알아차린다. 패턴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검증한다.

그러므로 패턴은 다음 사례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선취(Vorgriff)이지, 확정이 아니다.

첫 번째 형태의 반론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규칙 따르기에 관한 고찰에서, 두 번째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반복 가능성(iterability) 사상에서 알려져 있다. 반복되는 기호는 모든 새로운 연관 속에서 조금씩 다른 기호다.

4.4 너무 거친, 너무 세밀한

패턴은 압축해야 할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빗나갈 수 있다. 너무 거칠 수 있다. 이웃이 평일 5시 반에 온다고 기억한 사람은 방학이라는 것이 떠오르기 전까지 2주 동안 어두운 창문에 놀란다. 그리고 너무 세밀할 수 있다. 모든 도착 시각을 분 단위로 기억하는 사람, 17시 28분, 17시 34분, 17시 31분은 하나의 규칙 대신 열네 개의 수를 가지며 이전과 똑같이 현명하다.

둘 사이에는 일회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없다. 패턴이 얼마나 거칠어도 되는지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에 달려 있다. 이웃에게 부탁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저녁 무렵"으로 충분하다. 소포를 전달하려는 사람은 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시 1.4장의 첫 번째 척도, 무엇을 위해 압축하는가라는 물음이다. 패턴은 자신의 물음이 요구하는 만큼 보존

하고, 더 이상 뒷받침되지 않는 지점들에서 알아볼 수 있게 실패할 때 좋다.

4.5 패턴이 실패하는 지점

이웃은 월요일 7시에 온다. 왜일까? 아마도 월요일 오후에 회의가 있거나, 월요일에 운동을 가거나, 어머니를 방문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한 무관심하다. 패턴은 설명할 수 없어도 뒷받침한다. 그러나 무엇인가 변하는 순간 중요해진다. 그가 직장을 옮기면 회의는 사라지고 그것과 함께 패턴도 사라지지만, 운동은 아니다. 패턴이 계속 유효한지는 그것이 왜 유효한지 아는 사람만 안다.

여기에 이 부분의 모든 질서의 한계가 있다. 관점은 무엇에 주의하는지 말하고, 열과 칸은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 말하고, 패턴은 무엇이 되돌아오는지 말한다. 그중 어느 것도 왜 그러한지 말하지 않는다. 패턴은 사항에서 발견되기에 그것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패턴은 무엇인가가 반복된다는 것만 말하며, 그렇기에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 멈출지 말할 수 없다.

4.6 제1부 회고

이 부분은 왜 바로 이러한 단계들을 가지며, 왜 이 순서인가?

모든 질서는 이것을 저것 곁에 놓으며, 이를 위해 보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점이 처음에 있다. 관점은 모든 질서의 조건이며, 관점 없이는 배열만 있다(2.1장). 관점을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그것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하나의 특징에 따라, 그리고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특징에 따라, 서로 겹쳐 넣으며 말이다. 그것이 열과 칸의 질서다. 그것은 사항에서 그 특징만 취하고 다른 모든 것은 밖에 남긴다. 그러나 사항 자체에서 무엇인가가 되돌아온다는 것이 드러난다. 질서가 이 회귀를 따르는 곳에서, 질서는 더 이상 단지 들이대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패턴이다.

이 순서는 사항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질서의 순서다. 관점은 선택되고, 열은 선택된 관점을 따르며, 패턴은 그 안에서 발견된다.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패턴은 관점 안에서의 반복이며, 열을 만드는 사람은 이미 관점을 가진다.

반론: 아이들은 분류하거나 알파벳으로 찾기 훨씬 전에 패턴을 인식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답변: 이 순서는 학습의 역사가 아니라 의존의 순서다. 패턴을 인식하는 아이도 무언가에 주의한다. 엄마의 목소리에, 교통 소음에는 주의하지 않는다. 이 관점 없이는 그에게 반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것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패턴이 알파벳보다 일찍 학습된다는 것은 발견된 질서가 들이대어진 질서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질서가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무관심하다.

세 단계 모두 공통으로 무엇이 함께 속하는지 말하고 왜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어려운 사례들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에서다. 무엇이 함께 속하는지 왜인지 모르는 사람은 상황들이 변할 때 그것이 함께 남을지 알지 못한다. 제2부는 이를 묻는다.

제ii부: 왜 그것이 함께 속하는지

제5장: 원리(prinzip)

5.1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사람이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쪽으로 돌립니다. 물은 계속 차갑고, 그는 더 돌립니다. 그러다 물이 뜨거워집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시 돌립니다. 잠시 후에는 다시 너무 차가워집니다. 서너 번 반복한 뒤에 그는 원하던 온도를 맞춥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늬입니다. 너무 뜨거움과 너무 차가움 사이를 오가는 진동, 낯선 샤워기마다 되풀이되는 진동 말입니다.

왜 진동할까요? 그가 섞고 있는 물이 몇 초 뒤에야 샤워기 꼭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느끼는 것에 맞추어 조절하는데, 그가 느끼는 것은 몇 초 전의 물입니다. 모든 교정은 너무 늦게 도달하고, 그래서 목표를 지나쳐 버립니다. 이로써 그 무늬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제시됩니다. 측정과 조절로 이루어진 순환, 곧 어떤 조절의 결과가 지연되어 측정하는 쪽에 도달하는 순환 말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지연을 안고 작동하고 지연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세게 되돌릴수록, 같은 진동이 생겨납니다.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달린 난방기는 과열되었다가 과도하게 식어 버립니다. 오늘의 가격에 따라 사육을 조정하는 농부들이 모인 시장에서, 그 가격이 1년 뒤에야 효과를 낸다면, 풍요의 해와 부족의 해가 생겨납니다.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서는 원리(Prinzip)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시작, 근원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리는 다시금 하나의 응축이지만, 무늬와는 다른 종류의 응축입니다. 무늬는 많은 경우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습니다. 원리는 많은 무늬들을 그것들이 생겨나는 하나의 근거로 묶습니다. 샤워기, 난방기, 시장은 서로 다른 무늬,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진폭을 가집니다. 원리는 그 모두에서 같습니다.

5.2 일반화(Verallgemeinerung)와 원리

모든 일반적인 문장이 원리인 것은 아니다. “연습이 장인을 만든다” (DE: „Übung macht den Meister“)는 많은 경험을 요약하며, 대개 맞다. 그러나 그것은 연습이 왜 효과가 있는지 말하지 않으며, 그래서 언제 효과가 없는

지도 말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연습할 때, 피드백 없이 연습할 때, 과로한 채 연습할 때 말이다. 그것은 일반화↑, 즉 넓은 범위를 가진 패턴이다.

반면 지연된 피드백의 원리는 어떤 조건들에서 진자 운동이 나타나고 어떤 조건들에서 아닌지를 말한다. 결과가 지연 없이 도착하면 아무것도 진자 운동하지 않는다. 짧은 배관의 샤워기에 서 있는 사람은 첫 번에 온도를 맞춘다. 더 작은 단계로 조절하고 기다리면 진자 운동은 약해진다. 그러므로 원리는 무엇이 일어나는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일어나도록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본 적 없는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긴 지연이 있는 조절기에서 진자 운동을, 관찰하기 전에 기대한다.

원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교정이 편차에 대항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작용하면 아무것도 진자 운동하지 않고, 점점 증폭된다. 자신의 스피커를 받아들이는 마이크는 점점 더 크게 휘파람 분다. 다른 사람들이 인출하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인출하는 은행은 지불 불능이 된다. 측정과 조절의 같은 순환이 방향에 따라 두 개의 대립된 패턴을 산출하며, 방향으로부터 어느 것이 나타날지 미리 말할 수 있다.

4.1장의 행성 궤도 패턴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근거를 찾았다. 행성들이 타원 위를 돈다는 것은 케플러가 확정했다. 왜인지는, 떨어지는 돌과 조수를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가 비로소 말했다. 거리의 제곱에 따라 감소하는 질량들의 인력 말이다. 그것으로부터 케플러의 타원들이 따라 나왔고, 더 많은 것이 따라 나왔다. 즉 그것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 행성들이 서로 교란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원리를 일반화와 구별할 수 있다. 일반화는 알려진 사례들에서 무엇이 함께 만났는지 말한다. 원리는 무엇이 그것을 산출하는지 말하며,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말한다.

5.3 원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소득의 큰 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한다. 효용 극대화에 의한 설명은 그것에 어려움이 없다. 그는 기부에서 돈에서보다 더 많은 만족을 얻는다. 다른 사람은 소유 없이 은둔자로 살며 자신의 평온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 사람은 낯선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그에게는 옳게 행동한다는 느낌이 더 무거웠다. 원리는 매번 맞는다.

반론: 이로써 모든 원리 탐구에 대한 반론을 세울 수 있다. 모든 것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되는 원리는 새로운 것을 알려진 것으로 환원함으로써 설명한다. 알려진 것의 변형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가 될 때까지 재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성(Wirklichkeit)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산출

한다. 이전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행위, 삶의 형식, 이념(Idee) 말이다. 바로 그것에 대해 원리 탐구는 눈멀게 한다고 반론은 말한다.

답변: 반론은 적중하지만, 특정한 것을 적중한다. 이 장의 시작에서의 지연된 피드백은 너무 긴 지연을 가진 제어 순환(Regelkreis)이 진자 운동하기 시작한다고 예측한다. 그것은 검토될 수 있으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 기부자, 은둔자, 구원자를 똑같이 설명하는 형태의 효용 극대화는 어떤 인간에게서도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고, 그가 한 것을 사후에 해석한다. 원리는 그것이 배제하는 사례들만큼 유용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원리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새로운 것은 식별 표지를 얻는다. 새로운 것은 실천적으로 검증된 원리가 실패하는 것이다. 실패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눈멀지 않는다. 비로소 그가 그것을 위한 감각 기관을 가진다.

과학은 이 경로를 안다. 천왕성의 궤도가 질량들의 인력이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은 또 하나의 미지의 행성을 가정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계산했으며, 거기서 해왕성을 찾았다. 수성의 궤도가 아주 작은 양만큼 벗어났을 때, 사람들은 같은 것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편차는 남았고, 새로운 중력 이론이 그것을 설명할 때까지 남았다. 그것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옛 원리가 그것에서 실패할 만큼 충분히 정확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의 변형으로 사유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차이(Differenz)로 사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의 주도 사상이다.

5.4 원리가 실패하는 지점

원리는 긴 배관의 샤워기가 왜 진자 운동하는지 설명한다. 이 샤워기가 오늘 아침 진자 운동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배관이 얼마나 긴지, 수도꼭지가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 샤워하는 사람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서두르며 돌리는지, 온수 저장고가 가득 찼는지 알아야 한다. 원리는 보편적(allgemein)이다. 사례는 이 사례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리와 조건들에 달려 있다.

여기에 원리의 결함, 원리의 강점의 대응물이 있다. 원리는 조건들에서 벗어나 보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에서 유효하다. 조건들에서 벗어나 보기 때문에 어떤 사례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원리와 조건들을 함께 필요로 한다. 둘을 함께 근거(Grund)라 부르기로 한다.

제6장: 근거(grund)

6.1 빈, 임의의, 충분한

화분의 식물이 죽었다. 왜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이렇다. 그것은 생존 능력이 없었다. 그것은 근거처럼 들리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생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그것이 죽었다는 것만 뜻한다. 그러한 답들은 생각보다 더 흔하다. 누군가가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종종 같은 것을 두 번 말했을 뿐이다. 사항을 단지 반복하는 근거는 비어 있다(leer).

두 번째 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한다. 물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옆의 선인장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산다. 그리고 이웃집 식물은 물을 주었다. 매주 말이다. 그런데도 죽었다. 화분에 구멍이 없어 뿌리가 물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을 주지 않음은 다른 조건들 사이의 하나의 조건이며, 그것을 집어내는 사람은 하나를 집어낸 것이다. 왜 바로 이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의 조건을 전체로 삼는 근거는 임의적이다(beliebig).

세 번째 답은 조건들을 함께 취한다. 이 식물은 매주 물이 필요하다. 8월에 남쪽 창가에 있었고, 거기서 흙은 사흘 만에 마른다. 3주 동안 물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집어내지 않았고, 여기에는 두 번째 답이 건너뛴 어떤 것이 속한다.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가 말이다. 선인장은 선인장이기 때문에 같은 3주를 견뎠을 것이다. 사물 자체의 성질(Beschaffenheit)은 하나의 조건이며, 종종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사물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함께 취하는 근거를 충분하다(zureichend)고 부르기로 한다.

빈, 임의의↑, 충분한: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함을 제거한다. 빈 답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임의의 답은 무엇인가 말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답은 일어난 일이 일어나도록 무엇이 함께 모여야 했는지 말한다.

6.2 충분함은 얼마나인가

반론: 충분한↑ 근거는 도달할 수 없다. 조건들에는 해가 비쳤다는 것, 지구가 돈다는 것, 화분 식물이 вообще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모든 조건을 말하려는 사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답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모든 조건을 말해야 한다면 그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묻는 것은 이 식물이 왜 죽었는가다. 즉 왜 그것이 지난 여름처럼, 옆의 선인장처럼 살지 않고 죽었는가다. 두 경우 모두에서 같았던 조건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해는 지난 여름에도 비쳤다. 충분한 근거는 무엇이 비교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한 경우에서 달랐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한하며, 검토될 수 있다. 누군가가 물을 주었거나 식물이 북쪽 창가에 있었다면 살았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근거를 어떤 경우와 비교하는가라는 물음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물음은 대개 그렇게 의도된다. 식물이 왜 죽었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항상 뜻한다. 기대했던 것과의 차이에서 말이다. 그리고 다른 비교를 뜻하는 사람은 다른 근거를 얻는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니고 말이다. 틀린 것은 두 경우 모두에서 같았던 조건을 차이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뿐이다.

6.3 추론(Schluss)

근거 지음의 한 형식은 너무 오래되고 잘 알려져서 종종 근거 지음 일반으로 여겨진다. 추론이 그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처음 두 문장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 번째를 인정해야 한다.

추론은 처음 문장들이 맞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추론은 이행(Übergang)을 보장하지, 출발점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론은 충분한↑ 근거 옆의 고유한 종류의 근거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적을 수 있는 형식이다. 이 식물이 매주 물을 필요로 하고 3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죽었다. "그러면"은 "만약"이 완전할 때 확실하다. 완전한지 아닌지는 추론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근거 지음을 단순한 추론과 구별하는 작업이다. 타당한 추론도, 두 개의 처음 문장을 연결하는 중항이 사항을 맞힐 때에만 근거 지운다. 장미가 붉고, 모든 붉은 것은 아름다우며, 그러므로 장미는 아름답다고 추론하는 사람은 타당하게 추론했다. "가시가 있는"을 중항으로 하면 똑같이 타당하게 반대에 도달할 것이다. 사항이 단지 또한 가지는 중항은 6.1장의 임의의 근거가 다른 모습을 한 것이다.

6.4 근거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고, 병원은 기록한다. 환자가 약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가 교대 근무자이며 약을 하루 세 번 공복에 복용해야 했는데, 그것이 그의 교대와 양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제시된 근거는 참이며, 바로 병원을 면책하는 근거다.

반론: 여기서 근거 지음의 전체 기술에 대한 반론이 나온다. 근거들은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며,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근거 지음은 형식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사실들에 근거할 수 있지만, 어떤 사실들이 중요한지 선택함으로써 지배에 봉사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근거 지우는 사람은, 반론에 따르면, 그것이 일어나는 도구를 세련시킬 뿐이다.

답변: 두 가지가 옳다. 근거들의 선택은 그 자체로 검토해야 할 행위다. 그리고 이 검토에는 근거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물음이 속한다. 그러나 예에서 결함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교대 계획이라는 추가적인 근거를 통해서다. 병원의 근거 지음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근거 지음이며, 더 완전한 것이다. 그것은 약이 잘못 복용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 일어났는지,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었는지 보여 준다.

이 장의 언어로: 병원은 임의의↑ 근거, 참인 조건 하나를 집어냈으며, 선택은 그녀에게 아프지 않은 곳으로 떨어졌다. 근거가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는 의심은 그러므로 근거 지음을 끝내지 않는다. 그것은 근거 지음에 과제를 준다. 빠진 조건들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과제를 거부하고 근거의 이익에서 이미 그것의 거짓을 추론하는 곳에서야 비판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성 자체가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ärung)에서 전개했다.

6.5 사항 안의 근거

식물이 죽은 조건들 중 하나는 다른 것들과 다른 종류였다.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가 말이다. 남쪽 창가, 8월, 물을 주지 않은 3주는 상황(Umstand)들이다. 그것들은 다를 수 있었고, 식물은 같은 식물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매주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식물에 속하며, 그것이 변하면 다른 식물이다.

이로써 2.2장이 열어 두어야 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다. 거기서는 본질적인 것은 나머지가 의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의존한다”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무엇인가가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그것의 근거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사항에서 본질적인 것은 사항 자체에 속하고 상황들에 속하지 않는 근거들의 부분이다. 책에서는 텍스트였다. 내용, 구조, 독자에 대한 가치가 텍스트에서 따라 나온다. 어떤 표지에 꽂혀 있든 말이다. 그리고 2.2장의 두 번째 열린 물음, 즉 사항을 무엇으로 취하는가라는 물음도 답을 얻는다. 사람은 그것을, 근거들을 찾는 그것으로 취한다. 독자는 책이 그에게 주는 것의 근거들을 찾고 텍스트를 찾는다. 수집가는 이 개별 사본이 가치 있는 것의 근거들을 찾고, 그중 표지를 찾는다.

6.6 개별 근거가 실패하는 지점

단일 사건의 근거를 묻는 한, 조건들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많은 것의 근거를 물을 때는 달라진다. 왜 이 식물이 잎, 줄기, 뿌리를 가지며 바로 이것들을 가지는지. 왜 그것에 스무 가지 품종이 있는지. 왜 그것이 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시드는지. 여기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설명되어야 하며, 근거는 더 이상 조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사항 자체가 그것인 것이다.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빛, 물, 흙을 필요로 하는 생명(Leben) 말이다. 그것으로부터 부분들, 품종들, 계절들이 이해 가능해진다.

그러한 근거는 더 이상 단지 외부에서 정리하지 않으며, 더 이상 단지 무엇이 되돌아오는지 확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를 그것이 무엇인지로부터 구조화한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인지는 제3부가 묻는다.

6.7 제2부 회고

왜 바로 원리와 근거가 여기 있으며, 왜 이 순서인가?

제1부는 무엇인가가 왜 함께 속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끝났다. 이 물음은 두 단계에서 답해질 수 있다. 무엇이 패턴을 일반적으로 산출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든 말이다. 원리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왜 여기서 그리고 지금 나타났는지 제시할 수 있다. 원리를 조건들과 함께 취하는 근거가 그것이다.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다. 충분한↑

근거는 원리를 조건들 중 하나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항 안에 놓인 조건 말이다. 반면 원리는 개별 사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론: 사람들은 먼저 개별 사례의 근거를 묻지 않는가. 왜 내 식물이 죽었는지. 그리고 기껏해야 나중에 원리들을 묻지 않는가.

답변: 그렇게 묻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의 순서는, 제1부의 순서처럼, 의존의 순서다. 죽은 식물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매주 물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것의 종류의 원리다. 그가 그렇게 부르든 아니든. 개별 사례의 근거가 더 풍부한 구성물이며,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있다.

두 단계 모두 무엇인가가 왜 함께 속하는지 말한다. 어느 쪽도 하나의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 전체는 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두가 같은 근거에서 이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를 구조화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제iii부: 하나의 전체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 부분이 다루는 내용, 곧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종류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분절 방식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한때 학교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르쳐졌던 논리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곧 개념론, 판단론, 추론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의, 구분, 그리고 유와 종류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이 이론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반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후속 학문 사이에서 마모되었는데, 두 후속 학문 중 어느 것도 이 이론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집합론은 집합을 그 원소들을 통해서 규정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질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의의↑사물들을 나열한 것도 다른 집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집합이며, 구분이 사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이 언어에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형식 논리학은 명제들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옛 논리학이 지녔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개념들을 지닌 완성된 명제들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불투명한 대상으로부터 그런 다음 계산할 수 있는 개념들이 생겨나는지는 그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학문 사이에 여기서 문제로 삼는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작업은 형식화될 수 없지만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분절과 더 못한 분절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체는 여러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 질문은 서로 다른 분절을 산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1부가 이미 알고 있던 것, 곧 분류하기에 가장 가깝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제7장: 종들(arten)



그림 1: 종들의 기호: 틀 없이 세 개의 분리된 형상들. 그것들 사이의 간격이 의미를 지닌다.

7.1 고래

오랫동안 고래는 물고기로 간주되었다. 물속에 살고, 유선형이며 지느러미가 있고, 헤엄친다. 오늘날에는 포유류로 간주된다. 공기를 호흡하고, 온혈이며, 살아 있는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인다. 두 구분 모두 특징들에 따라 형성되었다. 왜 두 번째가 더 나은가?

고래가 이전에 분류되던 특징들은 서식지에 달려 있다. 물속에 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유선형이 된다. 물고기든, 포유류든, 새든 말이다. 펭귄도 그것을 가진다. 그러한 특징들은 상황들의 결과이며, 그래서 완전히 다른 동물들에서 나타난다. 고래가 오늘날 분류되는 특징들은 함께 나타나며, 우연히가 아니다. 따뜻한 피, 폐호흡, 새끼에게 젖 먹임은 고래가 유래한 육지 동물들과 공유한다. 그것은 조상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유지했다. 거기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도 말이다. 그것들은 상황들에서 따라 나오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에서 따라 나온다.

이로써 6.5장이 발견한 것이 다시 수용되었다. 좋은 구분은 사항의 근거들에 속하는 것에 따라 나누지, 상황들에 속하는 것에 따라 나누지 않는다. 고래는 누군가가 다른 관점을 선호했기 때문에 다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들이 어떤 것에서 따라 나오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3장의 칸 질서와의 차이다. 거기서는 특징이 선택되었다. 여기서는 탐색된다. 그러므로 빗나갈 수도 있다.

종들에 따른 질서를 분류(Klassifikation)라 부르기로 한다. 그 물음은 이렇다. 어떤 종들이 있는가? 그 구성 요소들은 나란히 서 있고, 서로를 배제하며, 서로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개는 포유류의 한 종이지, 그것의 한 단계가 아니다.

7.2 올바른 것과 좋은 것

구분들에는 칸들이 이미 알았던 규칙들이 적용된다(3.2장). 한 단계에서 특징이 바뀌면 안 된다. 한 단계의 종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합쳐서 구분되는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 이 규칙들에 줄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형태는 이분법(Zweiteilung)이다. 하나의 전체를 하나의 특징에 따라 그것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각 절반을 다시 그렇게 나눈다. 물체적인 것과 비물체적인 것, 물체적인 것을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으로, 생명 있는 것을 감각하는 것과 감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분법은 빈틈없다. 하나가 아닌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법은 대가가 있다. 그것은 모든 대상을 예-아니오 결정들의 연속으로 강제한다. 가장 적은 대상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불균등하다. 한쪽 절반은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되고, 다른 쪽은 그것의 부재로만 규정된다. "감각하지 않음"은 사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만 말한다. 그리고 단지 그렇게 구분된 것은 쉽게 나머지로 취급된다. 오늘날 생물학이 수행하는 생물의 구분은 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둘로 나누지 않고, 있는 만큼의 많은 구성 요소로 나눈다. 하나의 목은 임의로 많은 과로, 하나의 과는 임의로 많은 속으로 나뉜다. 그리고 단계마다 특징을 바꾼다. 한 단계에서 구별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구별하지 않으며, 거기서 나누는 것은 위에서는 무관심했다. 그것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각 개별 단계에서 특징은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상에 적응한다. 생물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나누는 단일한 특징이 없다. 그리고 하나를 강제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옳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구분을 얻는다.

여기서 올바른 구분과 좋은 구분의 차이가 드러난다. 구성 요소들이 서로를 배제하고 전체를 덮으면 올바르다. 경계들이 대상 자체가 차이를 만드는 곳에 있으면, 즉 특징이 단지 나눌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맞히면 좋다. 책을 색깔별로 정리하는 사람은, 모든 책이 색깔을 가지는 한, 올바르게 구분했으며, 책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 배후에는 구분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나의 규정(Bestimmung)은 그것이 배제하는 것을 통해 그것인 것이다. "포유류"는 포유류가 아닌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만 무엇인가를 뜻한다. 그러므로 구분은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하는 곳에 경계를 긋는 시도이며, 사항이 경계들을 갖지 않는 지점들에 경계를 그을 때,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지 않고도 실패한다.

7.3 대상이 경계를 긋지 않는 곳

주황은 어디서 끝나고 빨강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순수한 노랑에서 순수한 빨강까지 백 가지 색조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각각은 이웃과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하며, 모든 선은 근거 지어져야 합니다. 왜 여기인가, 한 톤 더 가지 않고? 언어들은 그것을 다르게 긋는다. 어떤 언어들은 주황에 대한 고유한 단어가 아예 없다.

반론: 그러한 이행은 색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덕과 산 사이, 아이와 어른 사이, 한 종과 그것이 유래한 종 사이에는 선이 아니라 과정(Verlauf)이 놓여 있다. 여기서 계급들을 만드는 분류는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계를 긋고, 모든 사물을 한쪽 또는 다른 쪽으로 강제한다. 그것은 과정에 폭력을 가하고, 그 폭력을 질서로 내세운다.

답변: 이전 절의 규칙이 답을 이미 포함한다. 좋은 구분은 경계들이 대상 자체가 차이를 만드는 곳에 있는 구분이다. 대상이 차이를 만들지 않는 곳에는 두 가지 정직한 길이 있다. 경계를 합의로 표시할 수 있다. 18세에 성년이 되는 것은 그날 무언가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는 사물들이 아니라 정도(Grad)들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가 부정직해지는 것은 합의된 경계를 발견된 것처럼 취급할 때다.

그러므로 경계 사례들은 분류하기를 반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대상이 어디서 절단하지 않는지 알려 주며, 그것들이 쌓이는 곳에서는 구분이 이 자리에서 합의임을 안다.

이 문제는 오래되었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더미의 오류(Trugschluss)로 알았다. 제거하는 어떤 단일한 낱알도 더미를 비-더미로 만들지 않지만,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7.4 구분하기가 멈추지 않을 때

구분하기를 배운 사람은 그것을 과장할 수 있다. 그는 친구와 산책하며, 친구가 이야기하는 동안 함께 분류한다. 지금은 직업, 지금은 가족, 지금은 둘 다. 그는 분류하기 위해 듣고, 친구가 말하려는 것을 잃는다. 그것이 자신의 계급들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분류는 여기서 더 이상 봉사하는 물음이 없다.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한다.

구분하기의 강박에는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다. 무엇인가를 한 종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서 무엇을 기대할지 안다. 반면 분류되지 않은 것은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종이 제공하는 기대는 종만큼만 좋다. 세 문장 후에 사람을 한 종에 귀속시킨 사람은 네 번째부터는 그것에

맞는 것만 듣는다. “이것이 어떤 경우(Fall)인지 모르겠다” (DE: „Ich weiß nicht, was für ein Fall das ist“)라는 문장은 그래서 종종 이해의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다.

7.5 종이 실패하는 지점

고래가 포유류임을 아는 사람은 고래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 온혈이라는 것.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숨을 참는지는 아직 모른다. 종은 고래가 다른 것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에서 그것들과 구별되는지 말한다. 종은 고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분류의 한계다. 분류의 구성 요소들은 나란히 있으며, 각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이고, 구분은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각각의 내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심장은 개의 부분이지 개의 종이 아니다. 개별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다른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제8장: 부분들(teile)



그림 2: 부분들의 기호: 내부가 구별된 하나의 닫힌 형상.

8.1 자전거의 두 가지 분해

자전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해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분해할 수 있다. 강철, 알루미늄, 고무, 플라스틱, 안장의 약간의 가죽. 이 분해는 완전하고, 모든 조각이 하나의 재료에 속하며, 재활용 센터에는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는 것에 따라 분해할 수도 있다. 프레임은 지탱하고, 두 바퀴는 구르고, 구동계는 다리의 힘을 전달하고, 브레이크는 멈추고, 핸들은 조향한다. 이 분해도 완전하며, 자전거를 이해하거나 수리하려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것이다.

두 번째 분해는 첫 번째에 없는 무엇을 가진다. 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지 말한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것은 그를 지탱해야 하고, 굴러야 하고, 힘을 전달해야 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조향될 수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빠지면 그것은 쓸모 있는 자전거가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위험하고, 핸들 없는 자전거는 다음 커브로 직진한다. 부분들은 전체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에서 따라 나온다. 반면 재료에 따른 분해는 자전거에 대해, 고철 더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부분들에 따른 질서를 구성(Komposition)이라 부르기로 한다. 라틴어로 합성이란 뜻이다. 텍스트의 경우 대개 구조화(Gliederung)라고 말한다. 그 물음은 이렇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종들과 달리 부분들은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유일

한 전체의 구성 요소들이며, 그 안에서만 그것인 것이다. 어떤 자전거에도 걸려 있지 않은 핸들은 아무것도 조향하지 않는다.

8.2 구조화를 좋게 만드는 것

같은 구별이 모든 구조화에 적용된다. 큰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역사에 따라, 하위 분야들에 따라, 응용들에 따라, 논쟁점들에 따라 구조화할 수 있다. 이 구조화들 각각은 가능하다. 다만 각각은 주제에 대해 다른 물음을 던진다. 어느 것이 올바른지는 먼저 강연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것은 다시 2장의 관점이다. 그러나 이 구조화들 각각의 안에는 더 나은 것과 더 나쁜 것이 있다. 하위 분야들을 단지 나열하는 하위 분야별 구조화는, 그 분야가 왜 바로 이러한 부분들로 나뉘는지 보여 주는 구조화보다 나쁘다.

부분들의 수는 사항이 정하지, 어림수에 대한 바람이 정하지 않는다. 자전거는 충족해야 할 과제들만큼 많은 부분들을 가진다. 신체는 필요한 기능들만큼 많은 기관들을 가진다. 강연을 반드시 세 점으로 나누려는 사람은, 세 점이 잘 기억되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청자의 근거이지 사항의 근거가 아니다. 그것은 정당할 수 있다. 다만 주제에 대한 정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8.3 구조화가 구조화되는 것보다 중요해질 때

구조화하기도 과장될 수 있다. 강연을 준비하며 내용 대신 몇 시간 동안 세 개가 되어야 하는지 네 개가 되어야 하는지, 3.2.1이 3.1.2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생각하는 사람은 구조화를 구조화되는 것으로부터 분리했다. 구조화는 보이고, 제시되고,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은 붙잡기 더 어렵다. 특히 종종 쓰면서 비로소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화에 대한 작업은 생각에 대한 작업으로부터의 편안한 도피다.

해독제는 간단하고 불편하다. 내용을 먼저 전개하고 구조화를 내용에서 얻는 것이다. 내용에서 나오는 구조화는 내용에 균열이 있는 곳에 균열이 있다. 그것이 구조화의 장점이다. 내용 이전에 확정된 구조화는 매끄럽고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8.4 교양서의 구조화

교양서는 하나의 열만 가진 구성이다(3.3장). 쓰는 사람이 나란히 눈앞에 보는 것을 읽는 사람은 앞뒤로 읽어야 한다. 그것의 부분들은 장들이며, 각 장은 전체에서 따라 나오는 과제를 가져야 한다. 브레이크가 주행에서 따라 나오듯이 말이다. 사고의 진행에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삭제될 수 있는 장은 부분이 아니라 부속물이다.

세 가지 오류가 교양서 구조화에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되돌아오기에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것들은 텍스트들이 대량으로 빠르게 생겨나는 곳에서 쌓이며, 프로그램들이 텍스트를 쓰는 곳에서 가장 많이 쌓인다. 첫 번째는 모든 장을 위한 동일한 설계도다. 도입, 개념 해명, 장단점이 있는 세 가지 하위 유형, 반론, 해결, 전환. 그러한 설계도는 내용 이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자전거의 재료 분해만큼 말한다. 모든 장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그 안에 맞는다. 두 번째는 이행 자리의 목록이다. 세 점을 아래로 나열하는 사람은 두 번째가 첫 번째에서 어떻게 따라 나오는지 말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이러한 이행들이 논증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예고다. 한 단락이 장이 무엇을 보여 줄지 말하지 않고 보여 주며, 끝에서는 다른 단락이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 말한다.

반대 시험은 자전거에서와 같다. 모든 장에 대해 왜 그것이 이 자리에 있고 무엇을 다음 장에 넘겨주는지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이행에서 이전 것이 무엇에서 실패했고 무엇을 열어 두었는지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구조화는 내용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구조화는 내용에 덮어씌워진 것이며, 독자는 늦어도 두 번째 장처럼 보이는 세 번째 장에서 알아차린다.

8.5 분해가 실패하는 지점

핸들은 자전거에서만 조향한다. 그러나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 밟고 조향하고 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주행한다. 브레이크는 도로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과제를 가진다. 도로의 경사와 젖음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강하게 잡아야 하는지 결정한다. 그리고 안장은 이 사람을 위해 맞춰져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 높거나 낮아야 한다. 자전거의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의 부분들이며, 그 전체는 다른 것들과의 연결(Verbindung) 속에서만 그것인 것이다.

게다가 같은 부분이 여러 전체에 속할 수 있다. 심장은 이 신체의 부분이고, 이식 후에는 다른 신체의 부분이다. 한 직원은 자신의 부서, 가족, 동호회의 부분이며, 각각에서 다른 부분이다. 전체의 분해는 그것이 무

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한다. 그것과 부분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묻는 것이 다음 질서다.

제9장: 연관들 (zusammenhä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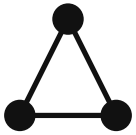

그림 3: 관계의 기호: 선들로 연결된 여러 형상들.

9.1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은 사람은 일자리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함께 이사하거나 남아야 할 가족, 새 도시의 집세, 친구들, 아이들의 학교, 통근길,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생각한다. 이 연결들 각각은 실제이며, 각각은 다시 다른 것들과 연결된다. 집세는 위치에, 위치는 통근길에, 통근길은 아이들을 위해 남는 시간에 달려 있다.

그러한 연결들을 따르는 질서를 관계(Relation)라 부르기로 한다. 라틴어로 관계란 뜻이다. 그 물음은 이렇다.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종들에 따라도 부분들에 따라도 정리하지 않고 실들을 잇는다. 그 그물(Netz)이 질서다.

이 질서의 어려움은 즉시 드러난다. 연결들은 무제한으로 많고, 모든 것은 어떻게든 모든 것과 연결된다. 일자리에 대해 결정하려는 사람은 모든 연결을 따라갈 수 없다. 그는 어떤 것이 뒷받침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9.2 세 종류의 연관

어떤 연결들은 단지 관찰된다. 교육을 더 받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더 많이 번다. 수들이 그것을 보여 준다. 왜인지는 보여 주지 않는다. 아마도 교육이 더 높은 소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아마도 둘은 공통 원인(Ursache)을 가질 것이다. 더 긴 교육과 더 나은 일자리를 모두 쉽게 만드는 출신 같은 것을 말이다. 그러한 연관을 사실적↑(faktisch)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것은 실제이지만,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들은 결과들이다. 배관의 지연이 샤워기를 진자 운동하게 한다(5.1장). 이자가 대출을 비싸게 하고, 비싼 대출이 주택 건설을 둔화시킨다. 그러한 연관을 기능적(funktional)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것은 무엇이 무엇에 작용하는지 말하며, 그래서 개입하면 무엇이 변하는지도 말한다.

또 다른 연결들은 사물들이 무엇인지에 놓여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그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구매한다. 그러한 연관을 개념적(begrifflich)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것은 관찰될 필요도, 야기될 필요도 없다. 사항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함께 이해한다.

세 종류는 쉽게 혼동되며, 관계적 사고(Beziehungsdenken)에서의 대부분의 오류 추리(Fehlschluss)는 그러한 혼동이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번다는 수에서 교육이 소득을 올린다고 추론하는 사람은 사실적 연관을 기능적으로 간주했다. 그는 옳을 수 있다. 증명한 것은 아니다.

9.3 나무와 망

제1부의 질서들은 모든 사물에 하나의 자리를 주었다. 3.3장에서 나온 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두 장소에 속했어야 할 것은 두 번째 장소에는 빠져 있었다. 연관들에 따른 질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질서는 같은 사물을 많은 것들과 연결할 수 있다.

오늘날 파일들을 질서 짓는 사람은 둘 다 이용할 수 있으며 대개 둘 다 이용한다. 폴더 나무는 위계적이다: 각 파일은 정확히 한 자리에 놓이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길을 따라간다. 주제어 부여는 그렇지 않다: 같은 파일이 임의의↑ 많은 태그를 지니며,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중 하나를 통해 접근한다. 나무는 어떤 사태가 분명하게 어디엔가 속하고 그 길을 알 때 적합하다. 태그는 어떤 사태가 여러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나중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찾게 될지 알지 못할 때 적합하다.

도서관들은 두 번째 형식을 위해 고유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패싯 분류이다. 그것은 대상을 한 번만 분류해 넣는 대신, 재료, 절차, 장소, 시간이라는 여러 독립적인 축에 따라 그 대상을 기술하며 모든 연결을 허용한다.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 나무는 다섯 단계와 고정된 순서를 지니게 된다. 패싯 질서는 다섯 축을 지니지만 순서는 없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동일한 대립이 나타난다. 상속은 하나의 나무이다: 하나의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으며, 위에서 성립하는 것은 그 아래의 모든 것에 성립한다. 그것은 사물들이 하나의 질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지탱해 주지만, 하나의 사태가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규정되는 순간 쓸모없게 된다. 이에 대한 응답은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묻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그 능력들을 연결한다.

3.3장의 질문은 이로써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옮겨졌을 뿐이다. 임의의 태그, 정렬, 필터는 누군가 그것을 위한 필드들을, 데이터 일반을 위해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를 위해 마련하고 만들어 둔 곳에서만 존재한다. 발신자 필드가 없는 기록 보관소는 다른 점에서는 아무리 민첩하더라도 발신자별로 필터링할 수 없다. 어떤 관점들이 중요한지는 더 이상 철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할 때 결정된다. 그 결정은 모든 미래의 경우들을 위해 단 한 번 내려지며, 바로 그 때문에 각 서류 앞에서 매번 새로 선택해야 했던 등록 담당자의 결정보다 더 쉽게 간과된다.

서류가 아니라 과제들이 질서 지어지는 곳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제기된다. 국가는 그것들을 부처와 관청들에, 회사는 부서들에 나누며, 이로써 모든 과제는 정확히 하나의 장소를 갖는다. 사태의 연관들은 그러한 구분에 따르지 않는다. 새로운 도로는 교통, 대기, 건강, 예산에 영향을 미치며, 각 담당 부서는 그 도로에서 자기 소관의 일만 본다. 부분들을 정점에서, 내각이나 부서장 회의에서 비로소 한데 모으는 사람은 담당 부서 중 하나가 이미 본 것만 본다. 그 사이에 놓인 것은 어떤 폴더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행정기관들은 자기 소관의 나무 위에 망을 덧씌운다. 공동 작업반, 다른 기관들을 참여시킬 의무, 모든 부서를 가로질러 전체를 바라보는 기관들이 그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잘 지탱되는지는 기록 보관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축할 때 이미 마련된 연결들에서 판가름난다.

그러므로 나무와 망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세계관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질서 형식들이며, 선택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법전을 질서 짓는 사람은 일의성을 필요로 하며 나무를 택한다. 연구 문헌을 색인하는 사람은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태그를 택한다. 둘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둘 다 택하며, 대부분의 시스템이 정확히 그렇게 한다.

9.4 관계가 잘못 읽힐 때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들보다 더 많은 범죄가 기록된다. 수는 옳다. 대개 주민들에 대한 진술로 읽힌다. 그곳 사람들은 더 범죄적이라는 것이다. 이 구역에서 더 많이 단속되고 그래서 더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이 독법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독법은 작용한다. 더 많은 범죄가 의심되는 곳에서 더 많이 단속되고, 다음 통계는 이전 것을 확증한다.

반론: 여기서 관계적 사고에 대한 반론을 얻을 수 있다. 관계들을 확정하는 사람은 확정만 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연결들이 그어지는지 선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암시한다. 그렇게 연관들의 그물은 사물들의 질서를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각 개별 연결이 맞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이다.

답변: 그 반론은 세 종류의 연관의 구별이 만들어진 바로 그 오류를 정확히 기술한다. 구역과 기록된 범죄 수 사이에는 사실적↑ 연관이 존재한다. 그것을 기능적으로 읽는 것, 즉 수에 대한 주민들의 결과로 읽는 것은 수가 제공하지 않는 증명을 요구한다. 은폐되는 것은 관계들이 사유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종류의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내세워지기 때문이다. 빠진 것은 누군가가 건너뛴 선을 긋는 순간 드러난다. 단속에서 기록으로, 그리고 기록에서 다시 단속으로.

그러므로 관계망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관계적 사고이며, 더 정확한 것이다. 비판은 연결이 어떤 종류인지 묻고, 빠진 것을 긋는다.

지식과 권력이 서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산출한다는 것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작품의 핵심 사상이다.

9.5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될 때

커피 머신을 사려는 사람은 결정을 농장의 노동 조건들, 전력 소비, 캡슐 쓰레기, 부엌의 공간, 손님들의 취향, 향후 몇 년의 가계 계획과 연결할 수 있다. 이 연결들 각각은 정당하다. 그것들 모두를 따라가는 사람은 커피 머신을 사지 않는다.

관계적 사고는 자신의 고유한 과장, 철저함처럼 보이는 것을 가진다. 많은 연관들을 보는 사람은 현명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며, 종종 그렇다. 그러나 연결하기 뒤에는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고려되지 않은 연결이 하나라도 있는 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물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연관들이 이 자리에서 뒷받침하는가다. 그것은 다시 2장의 관점이, 이제 그물에 적용된 것이다.

9.6 망이 실패하는 지점

망은 어떤 것이 무엇과 연관되는지를 보여 주지만, 그것을 한순간의 모습으로 보여 줍니다. 한 부서의 다툼을, 누가 관여하고, 누가 누구와 동맹이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비난하는지를 기술하는 사람은 망을 그린 것이며, 어쩌면 완전한 망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은 묻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의 망은 지난해의 망이 아니며, 오늘의 망만 아는 사람은 입장들을 보지만, 왜 그것들이 그렇게 서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그것들이 한때 다르게 서 있었다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부의 세 질서는 모두 이 점을 공유합니다. 종류, 부분, 연관은 그 대상을 멈춰 세웁니다. 그것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무엇과 연관되는지를 물으며, 그동안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많은 대상에서는 그런 전제가 해롭지 않습니다. 공구함은 시간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들에서는 바로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다음 물음을 던집니다. 무엇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더 읽어보기: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장 14.8, 조직 (2026), 장 2

제10장: 과정들(verläu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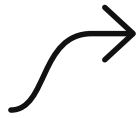

그림 4: 과정의 기호: 화살촉이 있는 굽은 궤적. 굽은 이유는, 곧은 화살이 과정만을 뜻하는 곳에서 진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10.1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DE: „Wie hat das angefangen?")라는 물음은 분쟁의 기술에서 빠진 것, 과정을 찾는다. 상태로 기술되면 갈등은 위치들의 배열처럼 보인다. 과정으로 기술되면, 위치들이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보여 준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호소들은 하나의 그림을 만들지만, 진단은 종종 그것들의 과정이어야 한다. 열이 갑자기 왔는지 천천히 올랐는지, 사흘마다 되돌아오는지. 균열이 있는 건물에서는 균열들의 위치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자랐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그것이 그것을 뜻하게 된 경위를 본다.

과정에 따른 질서를 짧게 과정(Verlauf)이라 부르기로 한다. 정착된 외래어로 프로세스(Prozess)라고도 한다. 그 물음은 이렇다. 무엇이 움직이는가, 무엇을 향해?

10.2 사항이 과정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때

모든 대상이 이 물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구 상자는 시간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구분될 수 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다. 결정하는 물음은 이렇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무엇인가가 그것인 것이 변하는가?

망치에서는 아니다. 망치는 닳지만 망치로 남는다. 인간에서는 그렇다.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하나에 맞는 기술은 다른 것을 빗나간다.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설립 연도의 동호회와 백 년 후의 같은 동호회는 다른 회원들을 가진 같은 것이 아니다.

답이 예인 곳에서, 대상을 정지시키는 구조화는 단지 불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를 기술하고 그것을 사항으로 내세운다.

10.3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무엇인가가 변한다는 것은 아직 질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과정에 따른 질서는 무엇을 향해인지 제시될 때에야 생겨난다. “처음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는 이랬다” (DE: „Erst war es so, dann so, dann so“)는 상태들의 나열이지 구조화가 아니다. 그것은 종들과 부분들이 이미 충족해야 했던 것과 같은 요구다. 특징을 말하지 않는 구분은 구분이 아니고, 원리를 말하지 않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원리들은 다르며, 몇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 어떤 것은 성장한다. 자신의 종류를 바꾸지 않고 그것인 것이 더 많아진다. 수집품이나 재산처럼. 어떤 것은 성숙한다. 서로에서 생겨나며 교환 불가능한 단계들을 거친다. 유기체(Organismus), 숙련, 이해처럼. 어떤 것은 되돌아온다. 운동이 돌아오지만 상태 전체는 변하지 않는다. 계절들이나 긴장과 이완의 교대처럼. 어떤 것은 전복될 때까지 증폭된다. 변화는 다소의 변화이다가 문턱에서 종류의 변화가 된다. 얼어붙는 물, 확대되는 분쟁처럼. 그리고 어떤 것은 분해된다. 그것을 함께 묶었던 것을 잃고, 부분들이 남는다.

과정을 정리하려는 사람은 과정의 원리를 찾으며, 종종 서로 교대하는 여러 원리를 찾는다. 분쟁은 전복될 때까지 증폭된다. 그 후에는 더 온건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언젠가 관계는 분해되거나 성숙한다. 구조화는 그때 이행들을, 정거장들이 아니라, 명명하는 데 있다.

10.4 리듬(Rhythmus)

운동의 한 형태는 특별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정리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항에 대해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두 운동 사이의 교대를 알아차린다. 하나에서는 수집한다. 재료에 자신을 열고, 관점들을 받아들이고, 불투명해지게 한다. 다른 하나에서는 정리한다. 압축하고, 결정하고, 생략한다.

두 운동 모두 필요하며, 둘 다 유혹을 가진다. 수집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항상 또 하나의 출처가 있다. 너무 일찍 정리하는 사람은 재료를 견디지 못하는 결과를 가진다. 교대는 사항에서 온다. 정리는 재료를 전제하고, 재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존 질서가 더 이상 그것을 담지 못하는 동안에만 가치가 있다. 리듬은 둘 다 필요로 하지만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는 행위의 운동 형식이다.

더 큰 규모에서 같은 것이 되돌아온다. 나선형 계단(Wendeltreppe)에서처럼. 이해는 같은 물음들로 돌아오지만, 한 바퀴 더 높이. 수년 전에 해명된 듯 보였던 것이 새로운 면들을 보여 준다. 이전의 이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그동안 더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원리를 가진 과정이다. 모든 회귀는 마지막 이후에 추가된 것을 함께 가져온다.

10.5 종들이 단계들일 때

어떤 대상들에서는 사람들이 구별하는 종들이 동시에 서로를 산출하는 단계들이다.

문자가 한 예다. 문자들을 기호가 대표하는 것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물, 단어, 음절, 음운. 그것은 종들에 따른 구분이다. 모든 문자는 어떤 종류를 따르는지에 대해 검토될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대략적으로, 시간 속의 연속이며, 근거를 가진 연속이다. 모든 단어에 고유한 기호가 필요한 문자는 수천 개의 기호가 필요하다. 기호들을 그 소리에 따라 다른 단어들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더 적게 필요로 하며, 소리를 개별 음운들까지 분해하는 사람은 수십 개로 충분하다. 각 종류는 이전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분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는다. 문자 종류들을 시간적으로만 읽는 사람은 근거 없는 연대기를 가진다. 하나가 다른 것에 이어졌을 뿐이다. 그것들을 종들로만 읽는 사람은 근거 없는 구분을 가진다. 네 가지가 있을 뿐이며, 그것들이 이 순서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연일 것이다. 함께 읽으면 세 번째 것이 나온다. 종들이 단계들인 이유는 각각이 이전 것이 실패한 것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정보이다. 종들과 단계들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문제에서 발전하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10.6 동시에 두 질서

두 정리 방식이 동시에 유효한 경우는 자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문자에서는 하나가 다른 것에 개입한다. 종들이 단계들이며, 둘은 함께만 이해된다. 반면 한 도시의 여행 안내서는 대개 세 부분, 즉 도시의 역사, 구역들, 종류별 명소들, 박물관, 교회들, 공원들을 가진다. 그것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세 물음이다. 한 번은 과정에 따라, 한 번은 부분들에 따라, 한 번은 종들에 따라. 그리고 목차가 하나의 열만 알기에(3.3장) 앞뒤로 서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가 다른 것에 개입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가 다른 것 옆에 있다. 둘을 혼동하는 사람은 단순한 이웃을 내적 연관으로 여기거나, 존재하는 것을 간과한다.

10.7 과정이 실패하는 지점

과정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 주고, 무엇을 향해인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종들과 단계들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왜 각 문자 종류가 바로 이전 것의 문제에서 형성되었는지는 단계들의 연속이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랬다는 것만 보여 줄 뿐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과정을 넘어선다.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유일한 근거에서 나오는 질서가 있는가? 그래서 질서 자체가 왜 바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인지, 왜 이 순서인지 말하는 질서 말이다.

제11장: 자기 전개 (selbstentfalt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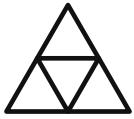

그림 5: 자기 전개의 기호: 삼각형, 그 안에 뒤집힌 삼각형이 들어 있고, 그 꼭짓점들은 변의 중점들에 닿는다. 같은 도형이 각 부분마다 반복된다.

11.1 수

학교에서 셈을 배울 때 쓰는 수에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재적 수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도시 이름처럼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수, 곧 하나, 둘, 셋으로는 셀 수 있고 더할 수 있으며, 그 어떤 덧셈도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뺄셈은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3 빼기 5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음수가 필요하고, 음수와 함께 정수가 필요합니다. 정수로는 모든 뺄셈이 맞아떨어지지만 모든 나눗셈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7 나누기 3은 정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분수, 곧 유리수가 필요합니다. 유리수로는 모든 나눗셈이 맞아떨어지지만 모든 제곱근 구하기가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리수도 자기 자신과 곱해서 2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새로운 수들이 필요합니다. 실재적 수는 이 틈만이 아니라 수직선의 모든 틈을 메웁니다. 그리고 이 놀이는 계속됩니다. 그 수들 가운데에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없습니다.

이 질서는 이제까지의 어떤 질서도 가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가집니다. 그것은 왜 바로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각각의 종류는 앞선 종류에서 어떤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겨납니다. 그것은 왜 그것들이 이 계열 안에 서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어떤 종류도 앞

선 종류보다 먼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종류에서 비로소 맞아떨어지지 않는 계산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종류에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도 말해 줍니다. 그것들은 계산할 수 있는 수들이며, 각각의 종류는 계산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종류들은 동시에 서로 위에 쌓여 올라가는 단계들입니다. 문자(10.5장)에서처럼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계열은 역사의 계열이 아닙니다. 2의 제곱근이 분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음수보다 훨씬 오래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성의 계열이며, 그 근거는 열린 채 놓여 있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하나의 요구 말입니다.

11.2 보편(Allgemeines), 특수(Besonderes), 개별(Einzelnes)

수들에서 세 측면을 구별할 수 있으며, 세 측면은 이러한 종류의 모든 질서에서 되돌아온다.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같은 보편이 있다. 풀려야 하는 계산 말이다. 보편이 구조화되는 특수가 있다. 수들의 종류들 말이다. 그리고 전체가 현실화되는 개별이 있다. 이 수, 2의 제곱근, 3분의 1, 마이너스 5 말이다. 특수화들(Besonderungen)은 보편에 외부에서 매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특정 조건들 아래에서 보편을 고찰하는 순간 보편에서 따라 나온다. 여기서는 특정 계산이 풀려야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말이다.

수학에서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도 같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보편은 피치자가 통치자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조건들에 달려 있다. 시민들이 하나의 광장에 들어가는 공동체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숙고하고 투표할 수 있다. 수백만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대표들을 선출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종류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는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지는 임의의↑ 형식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조건들 아래의 보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항상 개별로만 현실화된다. 이 공동체 회의에서, 이 의회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특수가 조건들 아래에서 보편에서 나오고 개별에서 현실화되는 질서를 여기서 자기 전개↑라 부르기로 한다. 그 안에서 사항이 자신의 구성 요소들을 자신으로부터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6장이 충분한 근거라 부른 것이다. 조건들과 함께 있는 보편 말이다. 새로운 것은 여기서 근거가 단일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전체 영역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특수화들을 이렇게 자신으로부터 산출하는 보편과, 그렇게 구조화된 전체에 대해 언어는 두 개의 오래된 단어를 가지며, 일상에서는 더 약하게 사용한다. 보편을 사항의 개념(Begriff)이라 한다. 보통은 단어와 그 의미를 이미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수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그 단어만 알지 않는다. 그는 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가 있는지 본다.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전체를 체계(System)라 한다. 보통은 모든 고정된 질서, 서류철까지도 그렇게 부른다. 이 책에서 체계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뜻한다. 사항을, 자신의 구성 요소들이 왜 이것들인지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것도 아는 것이다(11.3장).

□□ 5: □□ □□

민주주의 같은 풍부한 개념을 세 측면 중 두 개로만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보편과 개별로만, 그 다음에는 보편과 특수로만, 마지막에는 특수와 개별로만 말입니다. 각각 무엇이 빠집니까?
세 시도는 서로 다르게 실패합니다. 보편과 개별만: "민주주의는 피치자가 통치자를 규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 쉰 개의 예들이 있다." (DE: „Demokratie heißt, dass die Regierten die Regierung bestimmen; hier sind fünfzig Beispiele.") 예들을 구조화하는 것이 빠집니다. 왜 그것들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편과 특수만: "민주주의는 직접과 대의로 구조화된다." (DE: „Demokratie gliedert sich in unmittelbare und vertretende.") 사례가 빠집니다. 개요를 가지지만, 어젯밤의 집회가 그 아래에 드는지 모릅니다. 특수와 개별만: "의회들, 평의회들, 국민 투표들, 시민 집회들이 있다……." (DE: „Es gibt Parlamente, Räte, Volksabstimmungen, Bürgerversammlungen …") 그것들을 함께 묶는 것이 빠집니다. 많은 형식들을 가지지만, 왜 그것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세 측면은 모든 것이 세 부분을 가져야 하는 규칙이 아니다. 종들과 부분들의 수는 사항이 정한다(8.2장). 수들은 세 개보다 많은 종류를 가지고, 민주주의는 두 개의 기본 형식을 가진다. 세 측면은 하나의 동일한 이해가 완전하려면 사항에 있어야 하는 세 가지 방식이다. 보편에서, 특수화들에서, 사례에서 말이다.

11.3 이것이 얼마나 멀리 뒷받침하는가

수들은 가장 유리한 경우다. 수들의 종류들은 보편과 계산이 풀려야 한다는 요구에서 완전히 도출될 수 있으며, 모든 개별 수에서 그것이 그것인 모든 것은 수의 규정에서 따라 나온다. 다른 대상들에서는 자기 전개가 덜 멀리 뒷받침한다.

생물에서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동물은 가볍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날아감에서 이해한다.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보다 긴 창자를 가진다는 것은 먹이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왜 바로 이러한 종류들의 나비들이 있고 다른 것들이 없는지는 어떤 보편에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역사를 가지며, 그 역사는 우연들로 가득하다. 3.3장의 등록부에서는 자기 전개가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어머니" 폴더와 "세금" 폴더가 있다는 것은 서류철의 어떤 개념에서도 따라 나오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의 삶에서 따라 나온다.

여기서 정리를 위한 규칙이 나온다. 구조화가 보편에서 나오는 곳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질서가 외적으로 남으며,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필연성(Notwendigkeit)의 가상을 주는 대신 말이다. 대부분의 대상들은 그 사이에 있다. 큰 윤곽들은 이해될 수 있고, 더 세부적인 가지들에서는 통찰이 사라진다.

11.4 보편을 찾는 방법

수에서는 보편이 열린 채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에서는 보편을 찾아야 하며, 그 찾기에는 배울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편을 시험 삼아 규정하고, 특수들이 그 규정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검사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규정을 고쳐 나갑니다.

검사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경계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아직 거기에 속하는가? 저것은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어디에서 불분명해지는가? 다른 하나는 폭입니다. 한계들 안에는 어떤 서로 다른 형식들이 있고, 가장 바깥의 것들은 무엇인가? 천문학에서는 오랫동안 태양 주위를 돌고 공으로 보일 만큼 큰 천체를 행성으로 간주했습니다. 해왕성 너머에서 점점 더 많은 천체들이 발견되고, 어떤 것은 명왕성만큼 크고 하나는 심지어 더 무거웠을 때, 그것들을 모두 행성이라고 부르거나 규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06년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행성은 또한 자신의 궤도를 다른 천체들로부터 깨끗이 비워 놓았어야 합니다. 이로써 명왕성은 제외되었습니다. 경계 경우가 보편을 더 정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규정은 왜 여덟 행성이 하나의 고유한 종을 형

성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궤도를 지배하고, 다른 천체들은 많은 천체들과 궤도를 공유합니다.

경계 경우들과 마주치는 것은 비로소 과학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낱말을 사용하면서 망설이는 곳에서 경계 경우들과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이 한 투표를 민주적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속 무언가가 멈칫합니다. 투표는 모두 할 수 있었지만, 투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었는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는가? 결과가 투표에 달려 있었는가, 아니면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는가? 이 망설임 속에서 그 낱말은 하나의 물음으로 바뀌었고, 그 물음에서 11.2장의 규정, 곧 통치받는 이들이 통치를 규정한다는 규정이 검사됩니다. 그 규정은 틀리지 않았지만 너무 거칠었습니다. 규정한다는 것은 투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규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결정하는지를 알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결정이 실제로 투표하는 이들에게 놓여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망설임은 명료성의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이 더 정확해지는 자리이며, 그것을 지나쳐 가는 사람은 낱말을 간직한 채 개념을 이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자신은 망설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이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가 다른 경우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계 경우들은 대화에서 비로소 발견됩니다. 더 정확한 규정은 더 거친 규정보다 더 잘 근거 지어지는데, 그 규정이 더 거친 규정이 막힌 곳에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규정은 아닙니다. 다른 경우들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통치받는 이들이 통치를 규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마도 다르게 더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폭력 없이 다시 정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두 검사는 서로를 정교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경계 경우는 보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강제하고, 더 정확하게 파악된 보편은 형식들을 새롭게 정돈합니다. 찾기는 한계들과 폭 모두를 그 규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면 끝납니다. 일단 끝납니다. 다음 경계 경우가 그 물음을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5 자신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개념들

누가 실업자로 간주되는지는 정의가 결정한다. 재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은 세는가? 주당 두 시간 일하는 사람은? 수색을 포기한 사람은? 답에 따라 수는 오르거나 내린다. 단 한 사람의 처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정의는 되돌아와 작용한다. 더 이상 세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급여를 받고 관청에서 다른 편지를 받으며, 어쩌면 곧 자신을 다르게 본다.

반론: 개념들은 단지 있는 것을 기술하지 않는다. 개념들은 무엇이 무엇으로 세어지는지 확정하며, 인간의 경우 그들이 확정하는 것을 변화시킨다. 진단, 통계의 범주, 집단에 대한 명칭은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루어지는 인간들을 산출한다. 그렇다면 개념 형성은 인식으로 자처하는 권력의 한 형태가 아닌가?

답변: 소견은 옳으며, 인간의 경우 사물들보다 더 무겁다. 돌은 다르게 분류해도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다만 개념은 그 대상을 그래서 임의로 형성하지는 않는다. 개념이 포착하는 인간들은 개념에 답한다. 그들은 개념이 자신에게 맞는지 부정하고, 개념의 그물코를 빠져나가고, 개념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된다. 자신의 대상을 함께 형성하는 개념은 돌에 대한 것보다 적지 않은 저항과 마주친다. 말할 수 있는 자와 마주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의무이지 면제가 아니다. 개념이 되돌아 작용하는 곳에서는 더 자주 검토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개념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속한다. 그들은 11.4장의 경계 사례들, 반박할 수 있는 자들이다.

개념들과 지식 질서들이 기술하는 듯 보이는 것을 산출한다는 것은 미셸 푸코가 광기, 질병, 형벌에서 탐구했다. 범주들이 그것들이 포착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되돌아 작용하는지는 이언 해킹(Ian Hacking)이 더 정확히 기술했다.

11.6 자기 전개와 다른 네 가지

자기 전개는 다른 정리 방식들 옆에 있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 안으로 수용한다. 보편은 밖으로는 종들로 구조화된다. 수들의 종류들, 민주주의의 형식들 말이다. 안으로는 부분들로 구조화된다. 대의 민주주의에는 선거들, 의회,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부가 속한다. 이 부분들 각각은 보편에서 따라 나오는 과제를 가진다.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연관들이 존재하며, 개념적 연관들이다. 의회는 유권자들, 정부와의 관계에서만 그것인 것이다. 그리고 특수화들이 서로에서 생겨나는 곳에서는, 수들에서처럼, 각 종류가 이전 것에서 형성되며, 종들은 동시에 단계들이다. 역사에서든 구축에서든 말이다.

다른 네 가지 정리 방식은 각각 사항에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 자기 전개는 이 네 물음에 대한 답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묻는다. 그래서 자기

전개는 끝에 있다. 자기 전개는 네 가지 옆의 다섯 번째 방식이 아니라, 네 가지가 자신의 근거를 가지는 곳에서 가지는 질서다.

이 수용에 대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단어가 있다. 네 가지가 자기 전개에서 자신의 근거를 가지는 곳에서, 그것들은 자기 전개에서 지양된다(aufgehoben). 그때 그것들은 더 이상 각자로서만 유효하지 않다. 그것들의 근거가 이 질서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 안에서 보존된다. 수들의 종류들은 여전히 종들이고 민주주의의 부분들은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안에서 더 높이 선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보기 때문이다. 이 삼중의 의미에서의 지양, 즉 끝냄, 보존함, 더 높이 들어 올림은 사유의 근본 운동이다. 진리 (2025)은 모순(Widerspruch)이 풀리는 곳에서 그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하나의 질서가 다른 것들을 자신 안으로 수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더 읽어보기: 진리, 장 7

제12장: 어떤 질서가 더 나은가?

12.1 알맞은 물음

불투명한 상황 앞에 선 사람은 다섯 물음 모두를 순서대로 던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빠진 것을 던지며, 빠진 것은 대개 이름 붙일 수 있기 전에 드러난다. 무엇과 관련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종류를 묻는다.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비슷한 것을 아는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은 분해한다. 무엇이 그것의 부분들인가,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만드는가? 무엇인가가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은 연관들을 묻는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누가 또 영향받는가? 기술이 옳아 보이지만 맞지 않는 사람은 과정을 묻는다. 어떻게 생겨났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질서가 매끄럽게 풀리지만 임의로 보이는 사람은 근거를 묻는다. 왜 바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인가?

질서는 모든 물음을 던짐으로써 생겨나지 않고, 올바른 물음을 던짐으로써 생겨난다. 때로는 하나로 충분하다. 문서가 어느 파일에 속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문서의 역사가 필요 없다. 때로는 여러 개가 필요하며, 그때 그것들은 서로 개입한다.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무엇이 대상의 부분으로 보이는지 변화시키고, 어떻게 분해하는지는 어떤 연관들이 보이게 되는지 변화시킨다.

12.2 세 단계

같은 대상의 두 질서가 가능할 때, 어느 것을 선호해야 하는가? 답은 세 단계를 가지며, 모든 정리 방식에 적용된다.

첫 번째는 포착함이다. 질서는 대상에서 더 많은 것을 수용할 때 더 낫다. 나머지↑ 없이 많은 사례들이 드는 적은 종들, 전체가 이해되는 적은 부분들 말이다. 그것이 1.3장의 압축이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보존함이다. 포착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강한 압축이 최선일 것이며, 1.3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중요한 차이들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질서는 많은 것을 포착했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물음이 정하고(1.4장, 2.2장), 그 다음 근거가 발견되는 곳에서는 사항이 정한다(6.5장).

세 번째는 자신의 원리를 함께 설명함이다. 좋은 질서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말할 뿐 아니라, 왜 이것들인지 인식하게 한다. 자기 전개가 정도들에서 이를 성취한다(11.3장). 성공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질서가 외적으로 남으며, 그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감추는 것보다 낫다.

자신의 원리를 아직 모르는 질서도 외적인 것 이상일 수 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Dmitri Mendelejew)가 1869년에 알려진 원소들을 원자량에 따라 배열하고,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서로 아래에 놓았을 때, 빈자리들이 남았다. 그는 그것들을 열어 두고, 거기에 원소들이 빠져 있다고 예측했으며, 그것들이 가져야 할 무게와 성질을 제시했다. 이후 17년 동안 그중 셋,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이 발견되었고, 맞았다. 왜 표가 바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멘델레예프는 몰랐다. 원자들의 구조가 비로소 그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의 질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빠졌는지 표시했으며, 그로써 편리한 배열 이상임이 입증되었다.

나쁜 질서는 무성해진다는(wuchert) 데서 알아본다. 모든 새로운 사례에 대해 새로운 범주가, 모든 편차에 대해 예외(Ausnahme)가, 모든 반례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필요하다. 그때 질서는 모든 것을 포착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사례에서도 실패할 수 없다. 모든 사례에 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원리를 함께 설명하는 질서는 형성 시에 없었던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례가 맞지 않을 때 표시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질서로부터 배운다.

구성 요소들의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나온다. 수는 거의 결정적이지 않다. 질서가 종들이나 부분들을 구별하는 곳에서는 사항이 수를 정한다. 얼마나 크든 말이다. 규정이 어떻게 더 정확해지는지를 질서가 추적하는 곳에서는 다르다. 거기서는 세 구성 요소가 나온다. 사항과 대략 일치하는 첫 번째 파악,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갈라지는 경계 사례, 다시 일치하고 이제 경계 사례가 보여 준 것을 전개하는 더 정확한 파악이 그것이다. 11.4장의 행성 규정이 해왕성 너머의 천체들을 거쳐 더 정확한 것으로 나아갔다. 10.4장의 나선형 계단에서처럼 한 바퀴 더 높이 말이다. 이 세 구성 요소는 규정이 더 정확해지는 모든 사유의 운동이 가지지만, 모든 구조화가 가지지는 않는다. 사항의 과정은 성장하고, 전복되고, 분해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10.3장). 그리고 세 가지 각각은 더 구조화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아지지만 운동은 변하지 않는다. 수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개 잘못된 물음에 대해 논쟁한다. 검토할 것은 셋인지 넷인지가 아니라, 각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뒷받침하는지, 합쳐서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지다.

12.3 교차 참조(Verweise)

어떤 질서도 모든 사물을 그것이 속하는 모든 자리에 수용하지 않으며, 어떤 서술도 모든 것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없다(3.3장). 두 번째 자리에서 빠진 것은 교차 참조를 통해 그곳으로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교차 참조들이 모두 같은 종류는 아니며, 교차 참조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한다.

질서의 두 자리는 두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질서 안에서의 위치를 통해서, 또는 그것들이 다루는 사항을 통해서. 위치를 통해 연결되는 것은 구조화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할 때다. 예를 들어 각각 삼분법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거나, 각각 질서가 실패하는 단계일 때 말이다. 그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친족이며, 위치 자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곳에서만, 즉 근거를 보여 주는 질서들에서만 무엇인가를 말한다. 알파벳에서는 두 단어가 페이지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사항을 통해서는 두 자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연결된다. 같은 사항이 두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 질서가 사항을 두 관점에서 통과하기 때문이다. "세금" 아래와 "어머니" 아래의 문서 말이다. 같은 사항이 다른 발전(Entwicklung)에 있을 수 있다. 한 자리가 다른 자리가 전개하는 것을 선취하거나, 나중 자리가 이전 자리가 시작한 것을 수용한다. 그리고 두 자리가 같은 사항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교차 참조가 가장 드물고 가장 통찰을 준다. 질서가 아직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방식들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자리들은 형식이나 내용을 통해 연결된다. 내용을 통해라면, 그것은 같거나, 다른 발전에서 같거나, 모순되는 것이다. 이 구분이 완전한지는 네 가지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교차 참조들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교차 참조들은 접근을 개선한다(1.2장).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는 길을 단축한다. 그러나 비용도 든다.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리로의 교차 참조는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질서를 전적으로 교차 참조들로 구축할 수도 있다. 목차 없이, 열 없이, 교차 참조들로만 연결된 페이지들 말이다. 무엇을 찾는지 아는 사람은 빨리 그곳에 있다. 모르는 사람은 교차 참조를 하나씩 따라가고, 끝에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도,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교차 참조들은 접근을 제공한다. 개요를 제공하는 것은 열 또는 교차 참조들이 갈라져 나오는 나무다.

12.4 연구에서 그리고 글쓰기에서 정리하기

생물학에서 계통학(Systematik)은 어떤 종들이 있는지 묻는다. 해부학은 생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리학과 생태학은 생물의 부분들과 생물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발생 생물학과 진화론은 생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화론은, 뒷받침하는 곳에서, 왜 바로 이러한 종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한다. 진화론은 생물학이 자신의 구분을 함께 설명하는 자리이며, 진화론의 한계는 11.3장이 발견한 곳, 역사의 우연에 있다. 그러므로 다섯 물음은 대상들만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문들을 구조화한다.

연구하는 사람은 여기서 자신이 지금 어떤 물음을 던지는지 검토할 수 있다. 학문들에서의 어떤 논쟁은 2.2장이 기술한 것처럼 두 물음 사이의 논쟁이다. 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계통학자와 종이 서식지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는 생태학자는 같은 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일 수 있다. 둘 중 하나가 오류하는 일 없이 말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같은 선택 앞에 있으며, 하나의 열에서 선택해야 한다. 교과서는 종들에 따라, 부분들에 따라, 연관들에 따라, 역사에 따라, 또는 하나의 근본 사상에서 구조화될 수 있으며, 종종 여러 개를, 앞뒤로 또는 서로 겹쳐서 필요로 한다(10.6장). 좋은 구조화는 그 순서가 근거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독자에게 모든 자리에서 다음 자리에 필요한 것을 주고, 끝에서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구조화 말이다. 이 책은 회고들에서 그것을 시도한다.

12.5 제3부 회고

왜 바로 이 다섯 가지 정리 방식이며, 왜 이 순서인가?

각각은 이전 것이 실패한 것에 시작을 두었다. 종들은 나란히 있으며 개별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부분들은 그것을 말하지만, 부분들은 외부와 함께만 부분들이다. 연관들은 이 외부를 보여 주지만 한 순간에 보여 준다. 과정은 시간을 보여 주며, 종들과 단계들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근거에서 발전하지만 그 근거 자체를 명명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자기 전개가 그 근거를 명명한다. 순서는 제1부가 멈춘 곳, 분류에서 시작한다. 이제 사항에서 따라 나오는 특징들에 따른 분류 말이다. 순서는 자신의 구성 요소들이 왜 이것들인지 제시하는 질서에서 끝난다.

반론: 연관들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인 것이며, 종들과 부분들은 그물의 마디들이며, 그물이 첫 번째다.

답변: 그물에는 마디들이 있으며, 마디들은 그것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걸리도록 무엇인가여야 한다. 연관들을 처음에 놓는 사람은 그가 연결하는 구성 요소들을 이미 가져야 한다. 종들로서 또는 부분들로서 말이다. 구성 요소들이 연관들에서야 완전히 이해된다는 것은 옳다. 순서 자체가 그것을 보여 준다. 부분들은 외부와 함께만 그것인 것이라는 바로 그 점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연관들에서야 완전히 이해된다는 것은 연관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반론: 더 많은 정리 방식들이 있다. 지도처럼 장소에 따라, 또는 크기, 가격, 가치의 표처럼 지위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답변: 지도는 공간의 부분들과 그것들의 이웃 관계들을 정리한다. 부분들과 연관들에 따른 질서이며, 그것의 특징은 장소다. 지위 질서는 정도들을 가진 특징에 따른 구분이며, 종들에 속한다. 더 정확히는 7.3장이 사물들 대신 정도들에 대해 말한 것에 속한다. 모든 질서가 다섯 가지로 환원될 수 있는지는 이로써 증명되지 않았다. 다섯 가지는 이 경로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실천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다. 다섯 중 어느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여섯 번째를 찾는 사람은 이 구조화를 바꾸는 소견을 가진다.

제iv부: 질서가 요구하는 대가

제13장: 압축하기와 상실하기

13.1 압축의 세 단계

1.3장은 정리하기를 압축하기라 부르고, 그때 무엇이 상실되는지 열어두었다. 그 사이 세 단계의 압축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책은 세 단계 모두를 거쳤다.

첫 번째는 관찰들을 패턴들로 압축한다. 이웃의 열네 도착 시각 대신 하나의 규칙을 기억한다(4.1장). 두 번째는 패턴들을 원리들과 근거들로 압축한다. 샤워기, 난방, 시장의 진자 운동 대신 지연이 있는 제어 순환을 이해한다(5.1장). 세 번째는 전체 영역을, 모든 구성 요소가 자신의 자리를 가지는 구조화로, 가장 유리한 경우에는 왜 바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인지 말하는 구조화로 압축한다(11장).

각 단계에서 이전 것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얻는다. 패턴은 무엇이 되돌아오는지 말한다. 원리는 무엇이 반복되는지, 왜인지, 그리고 어디서 끝나는지 말한다. 구조화는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빗나갈 수 있다. 너무 거칠게 압축하여 중요한 것을 잃거나, 너무 세밀하게 압축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써 말이다. 1.3장의 편견은 첫 번째 단계의 오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효용 극대화는 두 번째 단계의 오류(5.3장), 무성한 구조화는 세 번째 단계의 오류다(12.2장).

13.2 압축이 성공하는 이유

세부들로 가득한 세계가 이렇게 압축될 수 있어서 적은 규칙들이 많은 사례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다. 한 답이 가깝다. 세계는 질서 지어져 있으며, 압축하는 사유는 세계의 질서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 답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며, 이 강도에서는 검토될 수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계를 어떤 압축도 없이 알아야만 자신의 압축들이 세계에 맞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가 세계를 보는 시선조차 이미 압축한다.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더 겸손하며 충분하다. 좋은 압축은 실천적으로 검증된다. 압축은 예측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압축이 형성되지 않은 사례들에서도 말이다. 그리고 압축이 기대하게 하는 것이 나타난다. 나쁜 압축은 실패한다. 틀린 것을 기대하게 하고, 압축에 근거한 계획들은 실패한다.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세계를 압축 없이 알 필요는 없다. 풀리지 않는 것에서 알아차린다. 2주 후에 다시 정리되는 옷장에서처럼(2.1장). 세계가 전체적으로 질서 지어져 있는지는 이것이 결정하지 않는다. 어떤 압축들은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다른 것들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13.3 나머지

모든 응축은 어떤 것을 빠뜨리며, 그중 어떤 것은 더 나은 응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친구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다. 그는 그 친구의 무늬들을 배웠고, 그 친구의 변덕의 근거들을 알며, 낯선 사람에게 몇 문장으로 그 친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그러한 설명들 중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 그 설명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는 자신에게서 응축될 수 있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무늬들의 한 경우에 불과하지 않다. 그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되며, 흔히 마땅한 일이다.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 문장을 읽는 동안 읽기 자체를 관찰해 보십시오. 눈의 움직임, 의미가 생겨나는 과정, 문장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아마도 읽기가 멈칫거릴 것입니다. 읽기를 하거나 읽기를 관찰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하는 것은 잘되지 않습니다.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읽기의 특징들입니다. 움직임들, 멈춤들, 되돌아감들 말입니다. 읽기 자체, 곧 문장이 이해되는 수행은 그 특징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질서는 하나의 수행을 서술할 수 있지만 그 수행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질서는 읽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말할 수 있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 자체는 바로 그 조건들로부터 예측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3장). 이 자리들에서, 곧 개별적인 것, 수행, 새로운 것에서, 어떤 질서도 따라잡지 못하는 나머지가 남습니다.

반론: 그렇다면 질서 짓기는 자기기만입니다. 자신의 질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해한 척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응답: 이 반론은 질서가 결코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을 질서에 요구합니다. 나라를 대체하려는 지도는 나라만큼 커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 질서는 질서가 아닐 것입니다. 질서 짓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개별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집니다. 그는 더 이상 개별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합니다. 친구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기대를 가졌던 사람뿐입니다. 기대에 따르지 않는 것은 2.1장에서 옷장이 다시 정리되었던 바로 그 저항입니다.

두 번째 반론, 반대 방향에서: 나머지는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의 나머지일 뿐입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인내가 있다면 친구도 예측할 수 있고, 오늘 놀라운 것은 내일 설명될 것입니다.

응답: 오늘 놀라운 것 중 어떤 것은 내일 설명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배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놀라움을 사전에 단지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선언해 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질서를 모든 반박에 대비해 안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질서는 그때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패할 수 없고, 그로써 무언가를 말하기를 멈춥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리(5.3장)처럼 말입니다. 두 반론 사이에 이 책이 처음부터 걸어온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질서 짓기, 그리고 질서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곳을 알아차리기 말입니다.

여기서 3.3장이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질서는 나머지를 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질서가 모든 것을 포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착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읽을거리: 진리 (2025), 장 11

제14장: 죽은 질서

14.1 양식 **47B**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거리 주차 허가증을 신청하려 한다. 그는 양식을 작성하고, 창구에서 그것이 작년 판본임을 알게 된다. 데이터는 이전될 수 없어서 새로 작성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에는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은 오늘 닫은 다른 창구에서 한다. 모든 개별 단계에는 근거가 있다. 전체는 그것을 위해 설치된 것을 방해한다.

그러한 질서는 악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대개 어리석음에서도 아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 근거들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대화로 처리할 수 없어서 규칙들이 쓰인다. 먼저 빈번한 사례들을 위해, 그 다음 드문 사례들을 위해, 그 다음 예외들의 예외들을 위해. 임의로 결정되는 곳에서는 종종 호감이 결정해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정해진다. 그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측정되고, 측정되기 어려운 것은 빠진다. 그리고 규정이 유효한 곳에서는 아무도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E: „Das steht so in der Vorschrift")가 말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준다. 이 움직임들 각각은 정당하다. 함께 그것들은 자신의 목적을 잊은 질서를 산출한다.

14.2 죽은 질서를 알아보는 방법

여기서 어떤 질서는, 그 부분들이 서로 관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도 않은 채로 작동할 때 기계적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더 넣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그 반대는 살아 있는 질서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위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뜻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성질입니다. 살아 있는 질서에서는 부분들이 서로를 규정하며, 전체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인지가 됩니다. 마치 핸들이 자전거에서만 방향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8.1장). 그리고 전체는 자신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자신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지탱하는 질서에서는 이 둘 모두가 관찰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전체 안에서만 자기 자

신이 되는 것은 역할들이지,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8.5장의 직원은 자기 가족과 자기 모임에도 속해 있습니다.

기계적 질서는 앞서 다룬 것들에서 나오는 징후들로 알아봅니다. 그 질서의 칸에 맞지 않는 것은 맞도록 만들어지거나 넘겨집니다. "기타" 칸은 빠져 있거나 넘쳐납니다(3.2장). 절차가 목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손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은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DE: „Wir konnten Ihnen nicht helfen, aber es wurde alles korrekt bearbeitet.") 어려운 경우들은 빈틈을 가리키는 단서가 아니라 방해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질서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빈틈을 지적하는 사람은 체계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살아 있는 질서는 그 반대 징후들을 보여 줍니다. 그 질서는 맞지 않는 것을 위한 자리가 있고, 그것이 쌓이는지 살펴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규칙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말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그 규칙이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들은 질서가 어디에서 너무 성긴지를 보여 주므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질서는 모든 반론에서 변하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실패하는 지점들에서 변합니다.

이때 척도는 어떤 질서가 얼마나 많은 규칙을 갖는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엄격한 규정들이 살아 있는 질서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 의약품 생산, 시험의 규칙, 법원의 절차가 그러합니다. 그곳에서는 엄격함이 불행이나 자의로부터 보호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압니다. 질서는 규칙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 적용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함으로써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서 안의 모든 기계적인 것이 결함인 것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질서도, 마치 신체가 뼈와 신진대사를 지니는 것처럼, 매번 아무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고 작동하는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문서 보관 체계, 정산, 휴가 중 업무 대행이 그러합니다. 그것들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요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짐을 덜어 줍니다. 이 장의 의미에서 기계적이 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에서 분리되어,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목적에도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돌아갈 때에만 그렇습니다.

14.3 정합적 기만(kohärente **Täuschung)**

이전 절의 구별에는 위험한 빈자리가 있다. 살아 있는 것의 거의 모든 표지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릇된 곳으로 이끄는 질서들이 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어려운 사례들에 응하며, 배울 준비가 되어 보이고, 많은 것을 설명하며, 틀렸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방문자들이 초기 고등 문명들을 세웠다고 확신한다. 그는 자료를 수집하며, 자료는 점점 많아진다. 그 시대의 수단으로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 돌들이 있는 건축물들, 둥근 머리를 가진 형상들의 암각화들, 하늘에서 온 신들의 전설들. 모든 조각이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 듯하며,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에게 빠진 것은 자료가 아니다. 빠진 것은, 그 명제의 빛으로 미리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가라는 물음이다. 기계 없이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암각화의 둥근 머리가 그 밖에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가면이나 머리 장식을 말이다. 그 명제는 자료를 꿰뚫는 대신 정리한다. 맞는 조각은 모두 확증으로 세고, 맞지 않는 조각은 모두 건너뛴다. 4.2장은 만들어진 패턴이 무엇일지 기술했다. 모든 소음 속에 들을 수 있는 패턴 말이다. 여기서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명제에 많은 자료가 발견될 수 있기에, 증거들의 양은 척도로 적합하지 않다.

물론 어떤 조각은 명제 없이도 설명되지 않은 채 남는다. 나스카 사막의 거대한 지상화들은 전체로는 위에서 가장 잘 조망된다. 그러한 그림들이 작은 밑그림에서 말뚝들과 끈들로 땅에 축척에 맞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 재현되었다. 이로써 당시의 수단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보여졌으며, 그것이 우주의 방문자들보다 더 단순한 설명이다.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은 재구성된 것이다.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설명, 그 이상은 아니다. 그림들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는 어차피 열려 있다. 근거 지어진 추측들이 여러 개 있지만, 결정은 없다. 바로 그때 현상(Phänomen)을 보존하는 것이 옳다. 아직 설명될 수 없고 나머지와 함께 모을 수 없어도 말이다. 그것은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열린 물음으로 남는다. 나쁜 설명은 그것을 너무 일찍 닫는다. 나쁜 설명은 근거 지어지지 않은 확실성을 주고, 물음이 계속 제기될 계기를 빼앗는다. 열려 있게 유지된 수수께끼는 틀린 답보다 더 정직하다.

그러한 질서는 게다가 압축에서 드러난다. 좋은 설명은 압축한다. 하나의 원리가 많은 사례를 설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함으로써 실천적으로 검증된다(5.2장). 정합적 기만은 나쁘게 압축하고, 좋은 압축으로 자처한다. 모든 새로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보조 가정(Zusatzannahme)이 필요하다. 어떤 조각이 다르게 설명되면, 다음 조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다른 설명이 그 자체로 명제의 부분이 된다. 가정들의 짐은 자라고, 예측력은 빈 채로 남는다. 사후에는 항상 모든 것이 맞고, 사전에는 실패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명제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무성한 질서(12.2장)이며, 자신의 무성함을 심오함으로 내세운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비밀 집단의 이야기다.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힘들이지 않고 설명하며, 모든 반론을 흡수한다. 반

론에서 부서지기는커녕 말이다. 반박하는 사람은 내부자에 속하거나 속임을 당한 것이며, 빠진 증거는 모두 흔적이 얼마나 잘 지워졌는지 보여줄 뿐이다. 오류는 설명의 형식에 있지, 대상에 있지 않다. 담합은 있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네트워크들이 자리들을 나누고, 관청들이 대중이 알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오랫동안 망상으로 간주된 것의 어떤 것은 조사들과 공개된 문서들로 입증되었다. 은밀한 행위에 대한 주장이 그래서 이미 정합적 기만인 것은 아니다. 주장은 다른 모든 것처럼 검토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어떤 흔적들을 남겼어야 하는지, 무엇이 그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 그러한 주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확증될 수 있다.

불신이 정당한 곳에서도, 그에 따르는 설명의 형식이 결정한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물음은 사실적↑ 연관을 확정한다. 누군가가 사건에서 이점을 가진다. 거기서 그가 그것을 야기했거나 계획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사실적 연관을 기능적으로 읽는 것이며(9.2장),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종종 다른 설명이 더 잘 압축한다. 인간들이 행동하는 상황들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많은 사례를 한 번에 설명한다. 아무도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사례들, 서로 다른 장소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모른 채 같은 일을 하는 사례들도 말이다. 계획에서 사례로 설명하는 사람은 모든 새로운 사례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상황들이 이미 설명하는 곳에서 계획은 보조 가정이라는 것만 말할 뿐이다. 상황들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가해자들을 찾는 불신은 종종 정당하지만, 잘못 방향 지어졌다. 가해자들이 지명되면 사항이 끝난 것으로 여기며, 새로운 가해자들을 산출하는 상황들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 남는다.

같은 이유로 "음모론"이라는 단어는 검토로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주장을 무엇에 관한 것인지, 공식적 서술과 모순되는지에 따라, 즉 상황들에 따라 정리하지, 구조에 따라 정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7.1장이 고래에서 보여 준 오류다. 그때 그 표지 아래에는 세계 음모의 닫힌 이야기와 은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입증된 취재가 똑같이 들어간다. 종종 표지도 불균등하게 부여된다. 적대 세력에 대해 밝혀내는 것은 계몽이라 불리고, 같은 절차가 자기 편에 적용되면 음모론이라 불린다. 표지는 심지어 자신이 대항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공식적 서술에 대한 모든 반론이 반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모적 사유의 표지로 간주되면, 이 서술은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패할 수 없다. 이와 친족인 것이 발신자에서 사항으로의 추론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장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기각하는 사람은 주장을 검토하지 않았다. 반대로 어떤 주장도 자신을 억압된 진리로 내세운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 두 방향 모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표지를 붙이는 대신 검토하는 것뿐이다.

증거들의 무게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 주장이 잘 검토된 지식에서 더 많이 벗어날수록, 더 많이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주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짐의 분배다. 잘 검토된 지식도 틀릴 수 있는 공유된 질서↑(geteilte Ordnung)다(14.4장). 규칙은 단지 그것이 정합성이 아니라 증거들에 의해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시험은 내적 정합성(Stimmigkeit)이 아니다. 내적 정합성은 정합적 기만이 넘치게 가지기 때문이다. 시험은 세 가지를 묻는다. 설명이 자료를 꿰뚫는가, 아니면 이전에 확정된 해석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가? 설명의 압축이 예측과 적용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되는가, 즉 모든 사례에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대신 하나의 근거에서 사례들의 전체 부류들을 설명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야 설명을 포기할 것인가? 마지막 물음에 답이 없는 질서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불멸이며, 불멸은 설명들에서 품질 표지가 아니다. 같은 세 물음이 공식적 서술과 반대자들에게 똑같이 제기된다.

여기서 왜 내적 정합성만으로는 뒷받침하지 못하는지도 드러난다. 정합성은 필요하다. 모순적인 설명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가장 닫힌 망상 건물도 그 자체로 정합적이다. 질서가 살아 있는지는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것에서 측정되어야 하지, 질서 자체에서가 아니다.

14.4 공유된 질서

지금까지는 마치 각자가 저마다 질서를 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다루는 거의 모든 질서는 물려받았거나 공유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단어는 완성된 응축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사람은 여러 세대가 작업해 온 질서를, 그 작업을 되풀이할 필요 없이 이어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유는 개별적인 것들에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형성한 질서들의 축적 속 한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학문들은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일은 나뉘어 있고, 홀로 검토하는 사람 자리에는 검토들의 짜임이 들어섭니다. 다시 계산하는 동료들, 반복되는 실험들,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지고 정교화되며 때때로 폐기되는 개념들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공식, 하나의 이론, 잘 규정된 전문어는 공동으로 검증된 응축들입니다. 작은 범위에서도 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손발이 맞는 작업 집단은 외부인에게는 공허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전체 경험을 담아 나르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응축들도 공동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행, 학파, 진영은 사태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질서들을 살아 있게 유지합니다. 그때 공동체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유된 질서는 자신의 질서와 같은 검토들에 더해 하나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를 위해 응축했는가, 그리고 그가 잘못 응축했다는 것을 나는 무엇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러한 공동체에서 먼저 상실되는 것은 질서의 올바름이 아니라, 그 질서의 오류를 알아차릴 가능성입니다.

더 읽어보기: 진리 (2025), 장 11a, 21, 22 and 10, 조직 (2026), 장 12

제15장: 고유한 질서

15.1 스스로를 정리하는 사유

□□ 7: □□□□ □□□ □□□□□□

잠시 멈추고, 이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중화와 마주칩니다. 정리하기에 대해 사유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리합니다. 질서들을, 그 자체로 질서인 척도들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화를 알아차리는 것도 다시 정리하기입니다.

반론: 거기에는 순환이 있으며, 무해한 순환이 아니다. 이 책은 질서들을 위한 척도들을 전개하고 그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그것은 줄자가 자신을 재는 것과 같다. 척도들이 자신만을 확증한다면 척도들의 권리는 어디서 와야 하는가?

답변: 줄자는 자신으로는 자신을 검토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줄자로, 알려진 길이의 대상으로, 같은 길이를 규정하는 다른 절차로 검토할 수 있다. 이 책의 척도들은 같은 처지에 있다. 척도들은 자신으로 검토되지 않고, 척도들에 저항할 수 있는 것에서 검토된다. 척도들이 실패할 수 있는 예들에서, 척도들에 대항하는 반론들에서, 자신의 질서들을 아는 독자의 경험에서 말이다. 척도가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척도를 순환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순환적이 되는 것은 척도가 자신에 대한 적용에서 실패할 수 없을 때다. 이 책은 자신의 척도들에서 실패할 수 있으며, 15.4장이 어디서인지 검토한다.

두 번째 반론: 사유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Grenze)들을 인식해야 하는가? 한계가 사유의 도달 범위 안에 있으면 한계가 아니며, 밖에 있으면 사유가 볼 수 없다.

답변: 여기서 말한 한계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풀리지 않는 것에서 알아차려졌다. "어머니" 아래에 빠진 문서에서, 어떤 기술도 기대하게 하지 못한 일을 한 친구에게서 말이다. 한계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한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질서가 여기

서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기대를 가진 모든 사유가 할 수 있다.

한 경우는 이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전체가 자신을 자신의 구성 요소들 중 하나로 포함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자신을 목록에 올리지 않는 모든 목록들의 목록 같은 경우, 모순들이 생겨나며, 이 모순들은 이 책의 의미에서의 정리하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논리학과 수학의 사항이며, 이 책은 그것들을 풀지 않는다. 이 책은 척도의 자신에 대한 적용이 이러한 종류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다.

15.2 고유한 질서들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질서들을 검토하는 사람은 결코 선택한 적 없는 척도들, 그리고 출처를 모르는 자명성들과 마주친다. 고유한 사유도 과정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다(10.2장).

▯▯ 8: ▯▯▯ ▯▯

일, 교육, 정치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확신들 중 하나를 취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묻고, 첫 번째 답을 기록하십시오. 그런 다음 물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이었는가?
첫 번째 답은 대개 오늘의 근거들이지 원래의 근거들이 아닙니다. 확신을 방어해야 할 때 내세우는 논증들로, 종종 확신 자체보다 어립니다. 더 파고들면 확신을 형성한 경험들과 마주칩니다. 귀 기울여 준 선생님, 그렇지 않았던 상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각할 수 있기 전에 함께 받은 자명성들과 마주칩니다. 가족에서 정상으로 간주되던 것, 자란 시대와 장소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것 말입니다.

이 층들은 오늘의 근거들보다 더 참이거나 더 거짓이 아니다. 확신이 초기 경험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확신의 올바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확신은 그럼에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출처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믿는 근거와 그것이 올바른 근거. 둘은 종종 일치하며, 때로는 아니다.

세 물음이 이를 돕는다. 세 물음은 10.3장이 과정들에 대해 말한 것에서 나온다. 나는 이전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그때 합리적이었던 어떤 근거들에서인가? 무엇이 나를 생각을 바꾸게 했는가, 논증들, 경험들, 사람들? 그리고 모든 변화들을 관통하여 무엇이 같게 남았는가? 마지막 물

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와 독립적으로, 어떻게 사유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세 물음 모두에서 앞을 가리키는 네 번째가 나온다. 나의 오늘 확신들 중 어떤 것들이 아마도 변할 것인가? 이미 여러 번 생각을 바꾼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어디서인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질서들의 출처를 묻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질서들도 더 잘 이해한다. 그들의 확신들도 똑같이 납득할 수 있는 길들에서 생겨났다. 그것은 자신의 확신들에서만큼이나 올바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올바름이 비로소 검토될 수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15.3 정리하는 자의 교만

이 책이 언급해야 하는 마지막 과장은 개별 정리 방식이 아니라 정리하기 일반에 관한 것이다. 정확히 구별하고, 깨끗하게 구분하고, 근거들을 요구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그것으로 오만해질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오류를 찾기 위해 듣는다. “너는 두 수준을 혼합하고 있어”, “그것은 단지 상관관계야” (DE: „das ist nur eine Korrelation“), “너는 근거를 대지 않았어”. 그는 종종 옳으며, 대화는 그럼에도 끝났다.

이것은 사항에 있는 근거를 가진다. 능력에 많은 노력을 쏟은 사람은 능력이 확증되는 것을 보고 싶으며, 자신의 방법이 쉽게 좋은 사유 일반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정확한 정리하기는 하나의 도구이지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 구분하기가 방해가 되는 영역들이 있다. 친구들 사이의 대화, 듣는 음악, 나누는 고통 말이다. 거기서 정리하는 사람은 더 적게 이해하지, 더 많이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과장할 수 있다. 모든 생각에서 지금 강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지, 오만하게 구조화하지 않는지 물을 수 있다. 그때 경고가 새로운 강박이 되었다. 이 책이 언급한 과장들, 구분하기에서(7.4장), 구조화하기에서(8.3장), 연결하기에서(9.5장), 그리고 여기서의 과장은 처리해야 할 목록이 아니다. 그것들은 능력이 자신의 물음을 잊은 자리들이며, 그에 대항하는 물음은 매번 같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위해 정리하는가?

15.3a 길

“여기서 나는 무엇을 위해 정리하는가?” (DE: „Wozu ordne ich hier?“)라는 물음은 책의 시작에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물음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읽으면서 답해졌으며(1.0장), 1.4장은 거기에 두 번째 물음을 묶었고, 그 물음은 열린 채로 남았다. 끝에 사항 자체에 속하

는 척도가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인지 말이다. 이 두 번째 물음은 사전에 답할 수 없었다. 책이 그 사이 가온 길을 통해서만 답할 수 있었다.

각 단계가 이전 것에 빠진 것을 보여 주었다는 것은 부분들의 끝에 있는 회고들이 개별적으로 말했다(4.6장, 6.7장, 12.5장).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행해진 것은 같은 것이었다. 이것을 저것 곁에 놓기(1.1장), 매번 사항 속으로 더 들어가기. 그리고 어떤 단계도 이전 것을 제거하지 않았다. 관점은 패턴 속에, 원리는 근거 속에, 종들과 부분들은 자기 전개↑ 속에 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서 지양되어 있다. 11.6장이 설명한 삼중의 의미에서 말이다.

이 길 밖의 척도를 이 책은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항은 질서가 풀리지 않는 곳에서 알렸다. 2주 후 다시 정리된 옷장에서, 다음 1분에서 실패한 구름 속의 얼굴에서, 수성의 궤도에서 말이다. 그리고 사항은 질서가 왜 자신의 구성 요소들이 이것들인지 말할 수 있는 곳, 수들에서처럼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을 보여 주었다. 질서를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의 그림은 이를 위해 필요하지 않았다(2.1장, 13.2장). 사항에 속하는 척도는 질서가 사항에서 실패하고 그로써 더 정확해지는(12.2장), 질서가 자신의 고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운동이다. 11.2장이 규정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15.4 이 책을 시험으로

이 책은 0.3장에서 자신의 척도들에 비추어 측정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 시험이 있다.

왜 바로 이 네 부분을 가지는가? 제1부는 무엇이 함께 속하는지 물었다. 관점, 열과 칸, 패턴. 제2부는 왜 함께 속하는지 물었다. 원리와 근거. 제3부는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물었다. 다섯 정리 방식. 제4부는 모든 질서가 무엇을 치르는지 물었다. 처음 세 부분은 질서가 자신의 고유한 근거에서 얼마나 아는가라는 물음을 따른다. 전혀, 개별 사례들의 근거로서, 전체의 근거로서. 제4부는 세 부분 모두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끝에 있어야 한다. 12.2장의 세 번째 단계에 따르면 이 구조화는 자신의 원리를 함께 설명한다. 적어도 큰 윤곽들에서는. 세부에서도 그런지, 예를 들어 관점이 고유한 장이 필요한지 열과 칸에 관한 장에 속하는지, 패턴이 아직 제1부에 속하는지 이미 제2부에 속하는지는 논쟁될 수 있으며, 부분들의 끝에 있는 회고들은 근거들을 제시하지 증명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책이 두 번째 단계를 지키는가,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가? 그것은 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책은 시험들을 함께 줄 수 있을 뿐이다. 충분히 완전한가, 아니면 당신이 자신의 정리에서 아는 무엇인가가 빠졌는가? 충분히 단순한가, 아니면 예외들이 사라질 정도로 단순한가? 주장들이 고유한 경험에서 검토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서지지 않고 확장되고 수정될 수 있는가?

무엇이 나타나야 이 책이 주장들을 포기할 것인가? 14.3장의 물음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답할 수 있다. 실험들이 많은 독자들에게서 기술된 것과 다르게 나온다면, 즉 사람들이 글자들을 힘들이지 않고 획들로 보거나 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다면, 기초 하나가 사라진다. 다섯 중 어느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정리 방식이 발견된다면(12.5장), 제3부의 구조화가 바뀌어야 한다. 나머지를 보이도록 유지하지 않는 질서가 실천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3.3장과 13.3장의 조건이 틀렸다. 이 자리들에서 이 책은 실패할 수 있다.

15.5 열린 채로 남는 것

어떤 대답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책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합하면 네 가지 물음이 명시적으로 열린 채로 남습니다. 그중 둘은, 비로소 전개 과정에서 생겨난 구분이 완전한지를 묻습니다. 다섯 가지 질서화 방식은 지금까지 입증되었지만, 여섯 번째가 없다는 것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12.5장). 12.3장의 상호 참조↑ 종류들은 두 지점이 형식 또는 내용을 통해 연관되는지 묻는 물음에서 얻어졌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상호 참조를 포괄하는지는 네 가지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상호 참조들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 물음은 절반만 전개된 척도에 관한 것입니다. 1.2장은 접근에 대해 단계들과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시했고, 개관에 대해 요소들의 수를 제시했지만, 어떤 질서가 한쪽을 개선하고 다른 쪽을 악화시킬 때 둘을 어떻게 서로 비교하여 저울질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물음은 개별 경우에서만 그을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전개가 지탱하는 곳과 대상의 추가 분기가 이제는 역사와 우연일 뿐인 곳은 개별 경우에서 보여줄 수 있지만(11.3장),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많은 생각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생각되었으며, 일부는 여기에 서 있는 것보다 더 강한 형태로 생각되었습니다. 부록 B는 그 위치를 말하고, 여기서는 핵심만 등장했던 반론들을 그 자체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더 읽어보기: 진리 (2025)

부록 **A:** 연습(übung)들

연습들은 가리키는 장들을 전제한다. 연습들에는 찾아볼 수 있는 해답이 없다. 성공했는지는 수행하는 사항에서 드러난다.

A1: 결정 정리하기

앞에 놓인 결정 하나를 취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통상적인 질서는 찬성과 반대의 근거들이 있는 목록입니다. 그것은 열이며(3장), 열의 결함을 가집니다. 어떤 근거들이 함께 속하고 어떤 근거들이 더 무거운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12.1장의 물음들을, 자신에게 빠진 것들만 던져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결정입니까? 직업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물음, 아니면 모험에 대한 것입니까? 이 종류들 각각은 다른 척도들을 가져옵니다. 결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가지며,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만듭니까? 결정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연관들이 단지 관찰된 것이고 어떤 것이 결과들입니까? 그리고 질문이 나오는 처지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결정이 더 명확해진 자리에 주의하십시오. 대개 하나의 유일한 물음이며, 나머지는 그것이 보여 준 것을 확증했을 뿐입니다.

A2: 논쟁 대화 정돈하기

두 사람이 재택근무를 두고 다툽니다. 한 사람은 재택근무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부서의 결속력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통제욕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같은 질문을 두고 다투고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2.2장). 흔히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질문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한 사람은 개별자의 일을 묻고, 다른 사람은 집단의 일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주장하는 연관(Zusammenhang)들이 어떤 종류(Art)인지 검

토해 보십시오(9.2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성과를 낸다” (DE: „Wer zu Hause arbeitet, schafft mehr“)는 관찰된 연관일 수도 있고 하나의 결과(Wirkung)일 수도 있는데, 결과에는 관찰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주장 각각이 어떤 조건(Bedingung)에서 들어맞는지 물어 보십시오(6.2장). 어떤 종류의 일에서, 어느 크기의 집단에서, 어떤 주거 조건에서인지 말입니다.

끝에 승자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조건 아래에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구분이 남습니다.

A3: 보관함(Ablage) 마련하기

서류나 파일을 위한 보관함을 마련해 보십시오. 먼저 나중에 가장 자주 무엇을 찾게 될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관점(Hinsicht)을 가장 위에 두십시오(3.2장). 맞지 않는 것을 위한 칸(Fach)을 하나 만드십시오. 몇 달 뒤 그 안에 무엇이 모였는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쌓인다면 칸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자리에 속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상호참조(Verweis)를 만들지, 사본을 만들지, 표식을 붙일지 결정하십시오(3.3장, 9.3장). 각각의 해결책에는 비용이 들며, 어떤 비용을 감당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1년 뒤에 그 보관함을 1.2장의 두 척도(Maß)로 검토해 보십시오. 특정 자료 하나를 찾는 데 손길이 몇 번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보관함을 일일이 훑지 않고도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A4: 응축(Verdichtung)하고 되찾기

잘 아는 글, 예를 들어 논문 한 편이나 한 장(章), 긴 이메일 하나를 한 문장으로 응축해 보십시오. 그 문장을 그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그가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하게 해 보십시오. 그가 기대하는 것과 글에 있는 것이 특정 지점들에서 달라지며, 바로 그 지점들에서 응축이 무언가를 포기(preisgeben)한 것입니다(1.3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험(Probe): 어떤 경우(Fall)에서 배운 원리(Prinzip)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우에 적용해 보십시오(5.2장). 그것이 받쳐 주면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받쳐 주지 않으면 패턴(Muster)을 배운 것이며,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A5: 강연 구성하기

구성(Gliederung)을 만들기 전에 말하려는 것을 써 보십시오(8.3장). 그 다음에 쓰인 것이 저절로 어떤 부분들로 나뉘는지, 왜 그 부분들로 나뉘는지 말할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8.1장). 그런 뒤에야 청중이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다른 순서를 요구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 구성의 잘못이 아니라 두 번째 관점(Hinsicht)이며, 여러분은 둘 사이에서 선택하거나 상호참조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더 말하겠습니다."

A6: 한 장(章) 검토하기

여러분이 쓴 장이나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위해 써 준 장을 하나 고르십시오. 각 단락의 처음 세 단어를 세로로 읽어 보십시오. 모두 똑같이 시작한다면 구조가 도식적입니다(8.4장). 목록들을 세어 보십시오. 각 목록에서 그 항목들이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어떻게 따라 나오는지를 말해 주는 문장들로 풀릴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그것이 되는 곳에서는 목록이 생각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고하는 문장을 모두 지우고, 무언가 빠졌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장 끝에 왜 다음 장이 따라 나오는지 말해 주는 문장을 써 보십시오. 그 문장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려움은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에 있는 것입니다.

부록 **B:** 이렇게 본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강한 반론들

이 책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0.2장).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자기 생각을 최초로 생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록은 더 읽을거리(Weiterlesen)를 알려 주고, 책에서는 핵심만 다루었던 반론들을 그 고유한 형태(Gestalt)로 제시합니다. 책의 진행이 전승되어 온 어떤 것과 닮았더라도, 그것은 어느 한쪽에 대한 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이 동일한 사안(Sache)에 대해 작업해 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B1: 각 장에 대하여

개관(Überblick), 접근(Zugriff), 응축 (1장, 13장). 좋은 설명이 데이터를 잃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강하게 응축하는지로 평가된다는 생각은 정보 이론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콜모고로프와 레이 솔로모노프의 이름과 연결되는 알고리즘 복잡성 이론과 요르마 리사넨의 최소 기술 길이 원리가 그것입니다.

열려 있는 패턴 (4.3장).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 185 이하)에서 "+2" 수열을 1000부터 다르게 계속하는 한 학생을 들어, 유한한 수의 경우가 규칙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넬슨 굿먼은 같은 문제를 "귀납의 새로운 수수께끼" (DE: „neue Rätsel der Induktion")로 제기했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서명, 사건, 맥락」(1972)에서 기호(Zeichen)는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서만 기호이며, 모든 반복 속에서 조금씩 다른 것이 된다는 생각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리들 (5.3장, 14.3장). 이론은 그것이 배제하는 만큼만 유용하다는 것은 칼 포퍼의 『과학적 발견의 논리』(Logik der Forschung)에서 제기된 반증 가능성 요구의 핵심입니다. 설명이 설명되는 것을 그저 이중화할 뿐이라는 조롱은 몰리에르가 『상상병 환자』에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아편이 잠을 오게 하는 것은 아편에 잠을 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행성 궤도 (4.1장, 5.2장, 5.3장).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화성 관측에 기초해 1609년 *Astronomia nova*에서 타원 궤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87년 『프린키피아』(*Principia*)에서 그것을 중력으로부터 도출했습니다. 해왕성은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가 1846년, 위르뱅 르베리에가 천왕성 궤도의 섭동으로부터 계산해 낸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 수성 궤도의 어긋남은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비로소 설명했습니다.

지연된 피드백 (5.1장). 제어 회로(Regelkreis)에 관한 일반 이론은 노버트 위너가 사이버네틱스라는 이름으로 정초했습니다. 돼지 시장에서 풍요와 부족이 교대하는 현상은 아르투어 하나우가 1920년대에 기술했으며, 그 뒤로 돼지고기 사이클(Schweinezyklus)이라고 불립니다.

공허함, 임의적임, 충분함 (6.1장). 같은 단계 구분이 헤겔의 『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는 형식적, 실재적, 완전한 근거로 나옵니다. 사안은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은 거기서 조건론에서 따라 나옵니다. 충분한↑ 것이라고 헤겔이 부르는 것은 비로소 개념, 즉 사안을 그 자체로부터 규정하는 것입니다(『엔치클로페디』 §121 덧붙임). 6.6장도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 구분을 헤겔의 텍스트에서 따라간 것은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2026), 장 21.6와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24.3에 있습니다. 원인(Ursache)은 대개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들이 함께 모일 때에만 충분하다는 점은 존 L. 매키가 더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설명은 항상 비교 사례를 염두에 둔다는 점, 곧 왜 이것이고 저것은 아닌가라는 점은 대조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바스 판 프라센과 피터 립턴 등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구분론 (III부, 7.2장). 유(Gattung)와 종차에 따른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플라톤주의자 포르피리오스는 3세기에 『범주론』 입문서에서 그것을 제시했으며, 이른바 포르피리오스의 나무, 곧 계속되는 이분법(Zweiteilung)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고래는 칼 폰 린네가 1758년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 제10판에서 포유류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유명한 구분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지어낸 중국 백과전서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물들은 무엇보다도 황제에게 속한 것들, 방부 처리된 것들, 길들여진 것들,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것들 등으로 나뉩니다. 미셸 푸코는 이 대목에 대한 폭소로 『말과 사물』을 시작했습니다.

명왕성 (11.4장). 행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국제천문연맹이 2006년 8월에 의결했습니다. 계기는 명왕성보다 무거운 왜행성 에리스의 발견이었습니다.

경계 사례와 모름 (7.4장, 11.4장). 개념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은 플라톤 초기 대화편의 진행 방식입니다. 『라케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용기가 무엇인

지 묻고, 대화 상대의 모든 규정은 경계 사례에서 실패합니다. 그중에는 통찰 없는 두려움 없음이 용기인지 무모함인지 하는 물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주기율표 (12.2장). 멘델레예프는 1869년에 자신의 표를 발표했습니다. 갈륨은 1875년, 스칸듐은 1879년, 저마늄은 188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더미 (7.3장). 더미의 오류(Trugschluss)는 메가라 학파의 밀레토스의 에우불리데스에게 귀속됩니다.

나무와 그물(Netz) (9.3장). 패싯 분류(Facettenklassifikation)는 인도의 사서 S. R. 랑가나탄이 1930년대에 발전시켰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상속보다 조립을 선호하라는 조언은 에리히 감마, 리처드 헬름, 랠프 존슨, 존 블리시데스가 1994년 디자인 패턴에 관한 책에서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단계이기도 한 종류들 (10.5장). 그림 문자에서 단어 문자와 음절 문자를 거쳐 알파벳 문자로 나아가는 계열은 이그나스 J. 겔브가 1952년 문자의 발전 법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연구는 그것이 지나치게 직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종류와 단계가 어떻게 겹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서는 거칠어진 형태로도 쓸모가 있습니다.

수 (11.1장). 수 체계가 특정 계산들이 맞아떨어지도록 확장되며, 그때 기존 계산 규칙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지 피콕이 1834년에 정식화했습니다. 헤르만 한켈이 1867년에 영속성 원리로 관철시켰습니다.

보편, 특수, 개별 (11.2장). 개념의 세 측면은 헤겔이 『논리학』의 개념론에서 발전시켰습니다(더 짧은 형태로는 『엔치클로페디』 §§ 163–165; 단계별 해설은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26). 이 책의 진행, 곧 사안에 외부에서 부과되는 질서들에서 출발하여 근거를 묻는 질서들을 거쳐 부분들을 보편으로부터 이해하는 질서들로 나아가는 길은, 대체로 헤겔 논리학이 존재, 본질, 개념으로 나아가는 길과 닮았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난 것입니다.

기계적 질서 (14.1장, 14.2장). 행정 조직에서 규칙들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로버트 K. 머턴이 1940년 목표 대체로 기술했습니다. 관료제의 "강철처럼 단단한 껍데기"라는 이미지는 막스 베버에게서 나옵니다. 목표로 만들어지는 측정 지표는 더 이상 좋은 측정 지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은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의 이름을 따 굿하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합적 기만 (14.3장). 우주에서 온 방문객이라는 명제는 에리히 폰 데니켄이 1968년 『신들의 전차』에서 대중화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45, 2권, 14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음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음모

가 사회를 설명한다는 것을 부정했으며, 음모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대개 의도된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빠진 단서가 모두 증거가 되는 폐쇄적 형식은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1964년 에세이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에서 기술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대화가 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 1권, 10장)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터무니없는 상상으로 여겨졌던 은밀한 프로그램들은 프랭크 처치가 이끄는 미국 상원 조사 위원회가 1975년과 1976년에 폭로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에 공개하게 한 문서들은 거의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대량 감시를 입증했습니다. 증거의 비중이 주장된 것의 비개연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데이비드 흄의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1748)의 기적에 관한 절에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를 비범한 주장은 비범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유된 질서↑ (14.4장). 인식은 사고 방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루트비크 플렉이 1935년 매독 연구의 사례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토머스 S. 쿤은 이 생각을 패러다임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믿음의 근거와 타당성의 근거 (15.2장). 확신의 발생과 그 정당화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스 라이헨바흐가 발견의 연관과 정당화의 연관의 차이로 파악했습니다. 확신의 기원에서 그것의 거짓됨을 추론하는 사람은 논리학이 발생적 오류라고 부르는 것을 범합니다.

자기 자신을 검사하는 측정 띠 (15.1장). 오토 노이라트는 인식의 처지를 넓은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선거(船渠)에서 분해할 수 없이 고쳐야 하는 뱃사람들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전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할 때 생겨나는 모순들은 버트런드 러셀이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들의 집합에서 발견했습니다.

B2: 다섯 가지 반론의 고유한 형태

다섯 가지 반론은 이 책에서 각 장과 관련되는 범위만큼만 수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한 형태 그대로 제시됩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 나무와 리좀(Rhizom) (3.3장, 5.3장).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좀』과 『천 개의 고원』에서 하나의 뿌리에서 점점 더 가는 가지들로 뻗어 나가는 나무에, 중심 없는 얽힘으로서 모든 점이 모든 점과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끊어졌다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리좀을 대립시킵니다. 나무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의 기원으로

되돌리는 질서의 이미지이고, 리좀은 하나의 통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수성의 이미지입니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1968)에서 이미 차이를 동일자로부터의 일탈로 사유하지 말고, 동일자를 차이들의 잠정적 고정으로 사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유와 종차에 따른 구분(7.2장)을 그 뿌리에서 타격합니다.

이 책은 모든 질서는 선택하고, 선택된 것은 자연(Natur)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이 책의 답변은 선택이 실패에서 드러나며, 질서는 자신의 나머지↑(Rest)를 가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3장, 13.3장). 들뢰즈와 가타리 자신도 나무와 리좀이 서로 관통하며, 리좀 속에 나무들이 있고 나무 속에 리좀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9.3장의 답변, 곧 둘 다 필요하다는 답변에 가깝습니다. 11장의 자기전개(Selbstentfaltung)가 전체를 하나의 보편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나무 형식이 아닌지 하는 물음은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이에 11.3장으로 답합니다. 그것은 받쳐 주는 곳에서만 받쳐 주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크 데리다: 가라앉지 않는 의미 (4.3장). 데리다에게 기호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만 그 자체이며, 모든 반복은 기호를 새로운 연관 속으로 옮겨 그 의미를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념은 다른 개념들을 지시하며, 그것들과의 차이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 책은 패턴이 열려 있고 사용 속에서 어긋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 책의 답변은 그 어긋남이 논쟁을 촉발하는 새로운 경우에서 알아차려질 수 있고, 거기서 패턴이 여전히 받쳐 주는지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사람이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해가 언젠가 완결된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처음 보기보다 4.3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 책이 개념들을 검사하는 경계 사례들(11.4장)이, 바로 그 경계 사례들이 검사해야 할 개념에 의해 이미 선별된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은 열려 있습니다.

테오도어 **W.** 아도르노: 개념과 비동일적인 것 (6.4장, 13.3장). 아도르노는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했던 이성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의 도구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부정 변증법』에서 반론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개념은 개별자를 보편 아래 포괄하며, 그 과정에서 개별자에게서 보편적이지 않은 것, 곧 비동일적인 것을 잘라 냅니다. 사유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념 너머로 나아가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응축은 나머지를 남기며, 그 나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13.3장). 이 책의 답변은 나머지는 그것이 저버리는 기대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며, 정돈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개별자

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도르노는 여기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나머지가 저버려진 기대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면, 나머지는 자신이 넘어서야 하는 개념의 척도(Maß)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념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념들을 개념 자신에 맞서 사용하고, 하나의 사안을 하나의 개념 아래 포괄하는 대신 여러 개념들을 그 둘레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곧 그중 어떤 개념도 홀로 적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는 성좌(Konstellation) 속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돈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9.3장의 패싯들과 멀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가시적으로 유지하라" (DE: „den Rest sichtbar halten")는 조건이 의도(Vorsatz) 이상인지, 곧 질서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은 열려 있습니다.

미셸 푸코: 지식의 질서, 권력의 질서 (9.4장, 11.5장). 푸코는 광기, 임상 의학, 감옥에 관한 연구에서 지식의 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처리하고 생산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환자, 범죄자, 정상인은 단순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실천 속에서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말과 사물』(1966)에서 그는 모든 시대가 자신의 지식을, 도대체 무엇이 정돈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틀 속에 구성하며, 이 틀들은 진보가 아니라 단절들을 따라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12장의 어떤 질서가 더 나은가라는 물음과 15.2장의 자기 자신의 질서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을 건드립니다. 이언 해킹은 여기에 이어서, 범주들이 그것이 포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작용하며, 이 되작용이 다시 범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술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 관한 개념들이 그 대상(Gegenstand)을 변화시키며 (11.5장), 관계(Beziehung)에 대한 독법이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다는 점(9.4장)에 동의합니다. 이 책의 답변은 개념이 포착하는 사람들은 그 개념에 반박할 수 있으며, 질서에 대한 비판 자체가 더 정확한 구분들로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푸코는 자신의 책들을 교조적 체계가 아니라 도구상자라고 불렀으며, 그 힘은 정확히 그러한 구분들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박이 언제나 들리는지 하는 물음은 열려 있고, 답변은 저절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4.4장은 공동체가 검사를 멈출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동체가 검사를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람은 행위하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책이 다룹니다.

리처드 로티: 사안 자체의 어휘는 없다 (7.2장, 12.1장). 로티는 『자연의 거울』(1979)에서 인식이 현실성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부정했습니다.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1989)에서 그는 사물들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어휘는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구분이 적중하는지 하는 물음은 사안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그 구분을

무엇에 쓰려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대상 자체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경계를 그어야 한다는 기준은 거울 이미지의 잔재일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질서는 어떤 질문에 봉사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12.1장). 이 책의 답변은 사안이 성공과 실패 속에서 자신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갈륨, 스칸듐, 저마늄이 주기율표가 빈칸을 남긴 자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12.2장)을 주기율표 스스로 만들어 낼 수는 없었습니다. 원소들은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선택된 어휘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휘 밖의 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맞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어휘 속에서 스스로 알립니다(진리 (2025), 장 11).

다섯 가지 모두에게 제기되는 재반문. 다섯 가지 반론 모두에 대해, 그것들이 자기 논박적이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로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현대의 철학적 담론』(1985)에서 카를-오토 아펠의 수행적 자기모순이라는 발상에 기대어 그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개념으로 개념에 맞서 글을 쓰고, 이론으로 이론에 맞서고, 정돈된 서술로 질서에 맞서는 사람은 자신이 비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보기보다 덜 적중합니다. 다섯 사람 모두 이 반론을 알고 답변했습니다. 데리다는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지시하는 발상으로, 아도르노는 자기 자신에 맞서는 사유로, 들뢰즈와 가타리는 나무와 리좀의 상호 관통으로, 푸코는 체계의 포기로, 로티는 자신이 더 나은 반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용한 어휘를 제안한다는 지적으로 답했습니다. 재반문에서 옳은 것은 더 소박합니다. 다섯 사람 중 누구도 정돈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정돈하고 더 정확하게 검사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B3: 다른 책들에서 더 읽어보기

어떤 장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에서 이어지는 경우,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은 장 끝에서 진리 (2025)을 가리키며, 어떤 장이 그 책에서 직접 이어지는 경우에는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과 조직 (2026)을 가리킵니다.

- 0장 (논리학에 관한 이웃 책):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2026), 장 1 (그 책의 시원에서의 사유 운동)
- 0장 (윤리학에 관한 이웃 책):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 1.3장 (응축하기와 편견, 타자에 대한 상을 통해 이어짐):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장 2
- 5장 (원리):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6

- 6장 (근거):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5 and 7
- 6.4장 (근거가 누구에게 봉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근거들로 이어짐):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장 3 and 9a
- 10장 (경과들):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4
- 10.1장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복의 계열로 이어짐):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장 5
- 11장 (자기 전개↑):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8
- 14장 (죽은 질서, 규칙들과 제도들로 이어짐):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장 11 and 12
- 14.4장 (공유된 질서↑, 경제에서 이어짐): *Kapitalismus — Eine Einführung* (in preparation), 장 25
- 15장 (열린 채로 남는 것):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12

용어집

사용 지침

이 용어집은 미리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들은 이 책에서 질서 짓기를 할 때 발견되는 것들에서 전개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낱말을 먼저 찾아보는 사람은 그 개념에 이르는 길 없이 규정만 얻게 됩니다.

이 용어집은 세 가지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낱말이 통상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나타날 때, 누군가 순서대로 읽지 않아 어떤 도입 설명을 놓쳤을 때, 어떤 표현이 책 전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려 할 때입니다.

정렬: 표제어들은 알파벳순으로 실려 있습니다. 움라우트는 그 기본 글자와 같은 것으로 칩니다.

유형은 표제어의 유래를 말합니다. 우리의 방법론은 이 책과 이웃 책들이 특별히 행하는 구별을 나타내고, 일반 철학적은 전통 속에서 도입되어 여기서는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나타냅니다.

전개된 곳은 어떤 개념이 전개되는 위치를 가리키며, 그 개념이 언급되는 모든 곳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은 가까이 떠오르기 쉬운 해석을 막아야 할 곳에 놓입니다.

함께 보기는 이 용어집에서 관련된 표제어들을 알려 주고, 어떤 개념이 이웃 책들 중 하나에서 더 전개될 경우 그곳의 표제어를 알려 줍니다.

개관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지 않고,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봄. 머릿속에 담아야 하는 항들의 수로 측정됩니다.

전개된 곳: 1.2장

함께 보기: 접근, 응축

개념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한 사태의 보편. 그것이 자신의 특수화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하고 개별에서 현실적이 되는 한에서의 보편입니다. 수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왜 바로 이러한 수의 종류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단지 의미를 가진 낱말이나 암기하는 정의. 이 약한 의미로 이 책은 이 낱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11.5장에서 말입니다. 더 강한 의미가 이 책이 도달하려는 의미입니다.

전개된 곳: 11.2장

함께 보기: 자기 전개; 보편, 특수, 개별; 체계, 체계적

경과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다섯 가지 질서화 방식 가운데 네 번째. “무엇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DE: „Was bewegt sich, und wonach?“)라는 질문에 따른 질서.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경과는 서술이 맞기는 하지만 적중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사태가 그것의 생성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개된 곳: 10.1장, 10.3장

함께 보기: 리듬, 질서화 방식

계열과 칸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선택된 특징에 따른 질서. 알파벳, 날짜, 분야에 따른 질서 말입니다. 여러 특징들은 서로 중첩됩니다. 칸들 안에 칸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질서는 접근을 주지만 개관은 주지 않으며, 나머지를 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전개된 곳: 3.1장, 3.2장, 3.3장

함께 보기: 외적, 접근, 무늬

공유된 질서 **(geteilte Ordnung)**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물려받았거나 공동으로 검증된 응축으로서, 모든 낱말이 이미 완성된 질서인 언어에서부터 한 학문의 개념들에 이르기까지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개별적인 것들에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형성해 놓은 질서들의 축적 한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이면: 잘못된 응축들도 공동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먼저 상실되는 것은 어떤 질서의 올바름이 아니라, 그 질서의 오류를 알아차릴 가능성입니다.

전개된 곳: 14.4장

함께 보기: 응축, 정합적 착각;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제도

관계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다섯 가지 질서화 방식 가운데 세 번째. “무엇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가?” (DE: „Womit hängt es zusammen?“)라는 질문에 따른 질서. 연관이라고도 합니다. 관계는 나무와 망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연결들만 보는 사람은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전개된 곳: 9.1장, 9.3장, 9.5장

함께 보기: 사실적, 기능적, 개념적 연관, 상호 참조

관점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이것을 저것 곁에 놓을 때 바라보는 것. 모든 질서는 그것이 이름 붙여지지 않더라도 하나의 관점을 가집니다. 다른 관점은 같은 사물들에서 다른 질서를 낳습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단지 주관적인 것. 관점은 선택합니다. 그 관점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개된 곳: 2.1장, 2.3장

함께 보기: 계열과 칸, 무늬

구성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다섯 가지 질서화 방식 가운데 두 번째.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따른 질서. 부분들은 전체 안에서만 그 자체로 존재하며, 각각은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과제를 가집니다. 부분들, 분절이라고도 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재료에 따른 분해. 강철, 고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자전거는 분해되어 있지만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개된 곳: 8.1장, 8.2장, 8.4장

함께 보기: 분류, 질서화 방식

근거: 공허한, 임의의, 충분한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근거 짓기의 세 단계. 공허한 근거는 사태를 다른 이름으로 되풀이합니다(“그것은 생존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DE: „sie war eben nicht lebensfähig“)). 임의의 근거는 많은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집어 듭니다. 충분한 근거는 사태 자체의 성질을 포함하여 모든 조건들을 함께 취합니다.

전개된 곳: 6.1장

함께 보기: 원리, 추론, 본질성

기계적 질서와 살아 있는 질서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이 서로 관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 없이 작동하는 질서입니다.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이 서로를 규정하고 전체 안에서만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신이 실패하는 것에서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담당하는 질서들에서는, 어떤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살아 있음이 드러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규칙들의 수나 엄격성의 문제. 항공기 정비나 법정 절차에서 엄격한 규정들은 살아 있는 질서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왜 타당한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질서는 죽은 것이 됩니다.

전개된 곳: 14.1장, 14.2장

함께 보기: 정합적 착각, 나머지

기준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이 책이 모든 질서를 재는 물음.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 질서는 왜 자신의 항들이 이러한 항들이고 왜 그렇게 놓여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가? 질서가 자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한, 그 질서는 사태에 외부에서 붙어 있습니다.

유래: 사태에 대한 어떤 그림, 곧 질서를 그 그림과 비교하는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질서가 사태에서 실패하고 그로써 더 정확해지는 운동에서 나옵니다.

전개된 곳: 0.3장, 12.2장, 15.3a장

함께 보기: 외적, 자기 전개

긴급성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지금 막 누군가를 사로잡고 있는 것. 긴급성은 질서 짓는 사람의 처지에 관계하며 사태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처지가 지나가면 긴급성은 사라지고, 사태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의 세 층위 가운데 첫 번째.

전개된 곳: 2.2장

함께 보기: 중요성, 본질성

나머지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어떤 응축도 따라잡지 못하는 것. 자신의 무늬들의 경우 이상인 개별적인 것, 수행을 수행하는 동안 관찰될 수 없는 수행, 아직 그것을 위한 칸이 없는 새로운 것 말입니다. 질서는 나머지를 포착할 필요는 없지만 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전개된 곳: 3.3장, 13.3장

함께 보기: 응축, 계열과 칸

리듬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모으기와 질서 짓기의 교체. 모으기에 머무는 사람은 아무런 결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너무 일찍 질서 짓는 사람은 결과를 가지지만, 그 결과는 자료를 견디지 못합니다. 교체는 사태에서 나옵니다.

전개된 곳: 10.4장

함께 보기: 경과

무늬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선택된 관점에서 사태에 집어넣어지지 않고 사태에서 발견되는 반복. 무늬는 다음 경우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선취이며, 열린 채로 남습니다. 유한한 수의 경우들은 무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비로소 인식이 산출하는 것. 무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사람의 관점 없이 단순히 현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개된 곳: 3.4장, 4.1장, 4.2장, 4.3장

함께 보기: 원리, 일반화, 관점

보편, 특수, 개별 **(Allgemeines, Besonderes, Einzelnes)**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어떤 이해가 완전해지려면 갖추어야 하는 세 측면입니다. 보편은 모든 경우에서 동일한 것이고, 특수는 조건 아래에서 보편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데, 바깥으로는 종들로, 안으로는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개별은 이 둘이 함께 만나는 실제 경우입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위계 질서의 세 단계라거나 모든 사태에 부과해야 하는 세 가지 수 같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분절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는 사태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전개된 곳: 11.2장, 11.3장

함께 보기: 자기 전개, 개념, 질서화 방식;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보편 (한 공동체의)

본질성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사태를 그것이 무엇인지로 만드는 것. 누가, 무엇을 위해 묻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사태의 근거들 가운데 사태 자신에게 속하고 사정들에 속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험 하나: 이것이 변하면 나머지도 변하는가?

의미하지 않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한 중요성. 무엇이 본질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은 두 질문 사이의 논쟁들입니다.

전개된 곳: 2.2장, 6.5장, 7.1장

함께 보기: 중요성, 긴급성, 근거: 공허한, 임의의, 충분한

분류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다섯 가지 질서화 방식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DE: „Was für Arten gibt es?")라는 질문에 따른 질서. 항들은 나란히 서 있으며 서로를 배제합니다. 분류는 분류하기에 가장 가깝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태가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답 없이는 그 구성도 그 연관도 제시될 수 없습니다.

전개된 곳: 7.1장

함께 보기: 올바르고 좋은 구분, 질서화 방식

사실적, 기능적, 개념적 연관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두 사물이 연관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 사실적: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지 못한 채 관찰됨. 기능적: 개입할 때 무엇이 변하는지를 말해 주는 하나의 결과. 개념적: 사물들이 무엇인지에 놓여 있는 연관. 구매자와 판매자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알아보는 방법: 관계적 사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오류는 이 셋의 혼동이며, 가장 흔한 것은 사실적 연관을 기능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물음은 사실적 연관을 확정할 뿐 어떤 계획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개된 곳: 9.2장, 9.4장, 14.3장

함께 보기: 관계

상호 참조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한 질서의 두 자리 사이의 연결. 상호 참조는 분절 안의 위치를 통해, 또는 사태를 통해 존재합니다. 사태를 통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같은 사태로서, 다른 발전에 있는 같은 사태로서, 또는 모순되게 규정된 것으로서 말입니다. 상호 참조들은 접근을 줍니다. 개관을 주는 것은 그것들이 갈라져 나오는 질서입니다.

전개된 곳: 12.3장

함께 보기: 접근, 관계

올바르고 좋은 구분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어떤 구분의 항들이 서로를 배제하고 합쳐서 전체를 덮을 때, 그 구분은 올바릅니다. 경계들이 대상 자체가 차이를 만드는 곳에 놓일 때, 그 구분은 좋습니다.

알아보는 방법: 자신의 책들을 색깔에 따라 정리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구분했지만 책에 대해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한 구분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지 않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개된 곳: 7.2장

함께 보기: 분류, 외적

외적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사태의 겉에만 놓여 있는 특징. 책의 색깔과 판형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질서가 사태에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왜 그 질서의 항들이 이러한 항들인지를 말할 수 없을 때, 그 질서를 외적이라고 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쓸모없음. 알파벳은 외적이지만 사전에는 정확히 알맞습니다. 그러한 질서가 사태의 질서로 간주될 때에 비로소 결함이 됩니다.

전개된 곳: 1.4장, 3.1장, 11.3장

함께 보기: 계열과 칸, 기준

원리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원리는 그 무늬가 어떤 조건들에서 나타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말하며, 그래서 결코 본 적이 없는 경우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리.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개된 곳: 5.1장, 5.2장, 5.3장

함께 보기: 일반화, 무늬, 근거

응축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의해 대표됨. 기술은 이를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응축에서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 때, 그 응축은 좋습니다. 응축의 가치는 그것이 포기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피할 수 있는 손실. 선택해야 할 것은 손실과 무손실 사이가 아니라 손실들 사이입니다.

전개된 곳: 1.3장, 13.1장, 13.2장

함께 보기: 편견, 나머지, 개관

일반화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큰 범위를 가진 무늬. 알려진 경우들에서 무엇이 함께 만났는지는 말하지만 왜 그런지는 말하지 않으며, 그래서 언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연습이 장인을 만든다” (DE: „Übung macht den Meister“)가 하나의 예입니다.

전개된 곳: 5.2장

함께 보기: 원리, 무늬

자기 전개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다섯 가지 질서화 방식 가운데 마지막. 특수가 조건들 아래에서 보편으로부터 생겨나고 개별에서 현실적이 되는 질서. 자기 전개는 왜 자신의 항들이 이러한 항들인지를 말하며, 그로써 이 책의 기준을 정도에 따라 충족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단지 다른 네 가지 곁에 놓인 방식. 자기 전개는 그 네 가지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근거를 가지는 곳에서 그 근거를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전개된 곳: 11.1장, 11.2장, 11.6장

함께 보기: 보편, 특수, 개별; 개념; 지양; 기준; 질서화 방식

접근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 찾기. 단계들과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 측정됩니다. 검색은 접근을 주지만 개관은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전개된 곳: 1.2장

함께 보기: 개관, 상호 참조

정합적 착각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그 자체로는 정합적이고 살아 있는 것의 거의 모든 징후를 보여 주지만, 자신의 자료를 사전에 확정된 해석에 따라 분류하고, 모든 새로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보조 가설을 필요로 하며, 그 어떤 것에서도 실패할 수 없는 질서.

의미하지 않는 것: 은폐된 행동에 대한 주장 그 자체. 오류는 설명의 형식에 있지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공모는 실제로 있으며, 그것에 대한 주장은 다른 어떤 주장과 마찬가지로 검사될 수 있습니다.

알아보는 방법: 세 가지 질문으로. 그 설명은 자신의 자료를 꿰뚫고 있는가, 아니면 분류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부류의 경우들을 하나의 근거에서 설명하는가? 사람들이 그 설명을 포기하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하

는가? 같은 질문들이 공식적인 설명에도, 그 반대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전개된 곳: 14.3장

함께 보기: 증식하는 질서, 기계적 질서와 살아 있는 질서, 사실적, 기능적, 개념적 연관

중요성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어떤 질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같은 것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의 세 층위 가운데 중간이며, 다른 두 층위와 가장 쉽게 혼동되는 층위입니다.

전개된 곳: 2.2장

함께 보기: 긴급성, 본질성

증식하는 질서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모든 새로운 경우에 대해 새로운 범주를, 모든 편차에 대해 예외를 필요로 하는 질서. 모든 것을 포착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개된 곳: 12.2장

함께 보기: 정합적 착각, 기준

지양 **(Aufhebung)**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어떤 규정을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그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그 규정은 더 이상 그 자체로만 타당하지 않고, 보존되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종류, 부분, 연관, 경과는 자기 전개 속에서 지양되며, 그 안에서 자신의 근거를 가집니다. 이 책의 각 단계도 다음 단계 속에서 지양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폐지. 지양된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개된 곳: 11.6장, 15.3a

함께 보기: 자기 전개; 진리 (2025), 용어집: 지양,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지양

질서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무언가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이 함께 속하는지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배치. 질서의 가장 작은 형식은 이것을 저것 곁에 놓음으로써 다른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임의의 모든 배치. 바람이 구석으로 날려 놓은 낙엽 더미에서도 이것이 저것 곁에 놓여 있지만, 거기서는 아무것도 추론해 낼 수 없습니다.

전개된 곳: 1.1장

함께 보기: 개관, 접근, 응축

질서화 방식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전체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이 낳는 분절. 이 책은 다섯 가지를 찾습니다. 종류들, 부분들, 연관들, 경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개. 자기 전개는 왜 다른 네 질문에 대한 답들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질서화 방식이 물어졌는지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완전한 목록. 여섯 번째 것이 없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전개된 곳: 제3부 서론, 7장부터 12장

함께 보기: 분류, 구성, 관계, 경과, 자기 전개

체계, 체계적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그 항들이 하나의 근거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전체. 체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항들이 왜 이러한 항들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질서 짓고,

그것이 말해질 수 없는 곳을 알고, 한 질서가 사태에서 실패하고 더 정확해지는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모든 고정된 질서. 연도와 발신자에 따른 문서 보관 체계는 정돈되어 있지만, 이 의미에서는 체계가 아닙니다.

전개된 곳: 11.2장, 15.3a장

함께 보기: 개념, 기준, 자기 전개

추론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충분한 근거를 적어 넣을 수 있는 형식. 추론은 이행을 보증하지만 출발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전제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론을 인정해야 하지만, 전제들이 맞는지는 추론이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충분한 근거 곁에 있는 별도의 근거 종류.

전개된 곳: 6.3장

함께 보기: 근거: 공허한, 임의의, 충분한

편견 **(Vorurteil)**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강하고 빠른 응축으로서, 바로 핵심이 되는 차이들을 포기해 버리는 응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덜 응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방식, 즉 포기된 차이들을 되찾아와 이번에는 어떤 차이들이 중요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검토에 앞서는 모든 기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대 없이는 어떤 대화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대는 더 이상 교정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편견이 됩니다.

전개된 곳: 1.3장

함께 보기: 응축; 진리 (2025), 용어집: 선-판단,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타인에 대한 상(像)